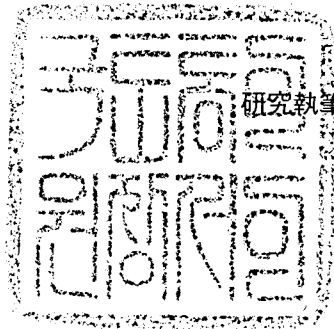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言論을 통한 南北對話再開및 促進方案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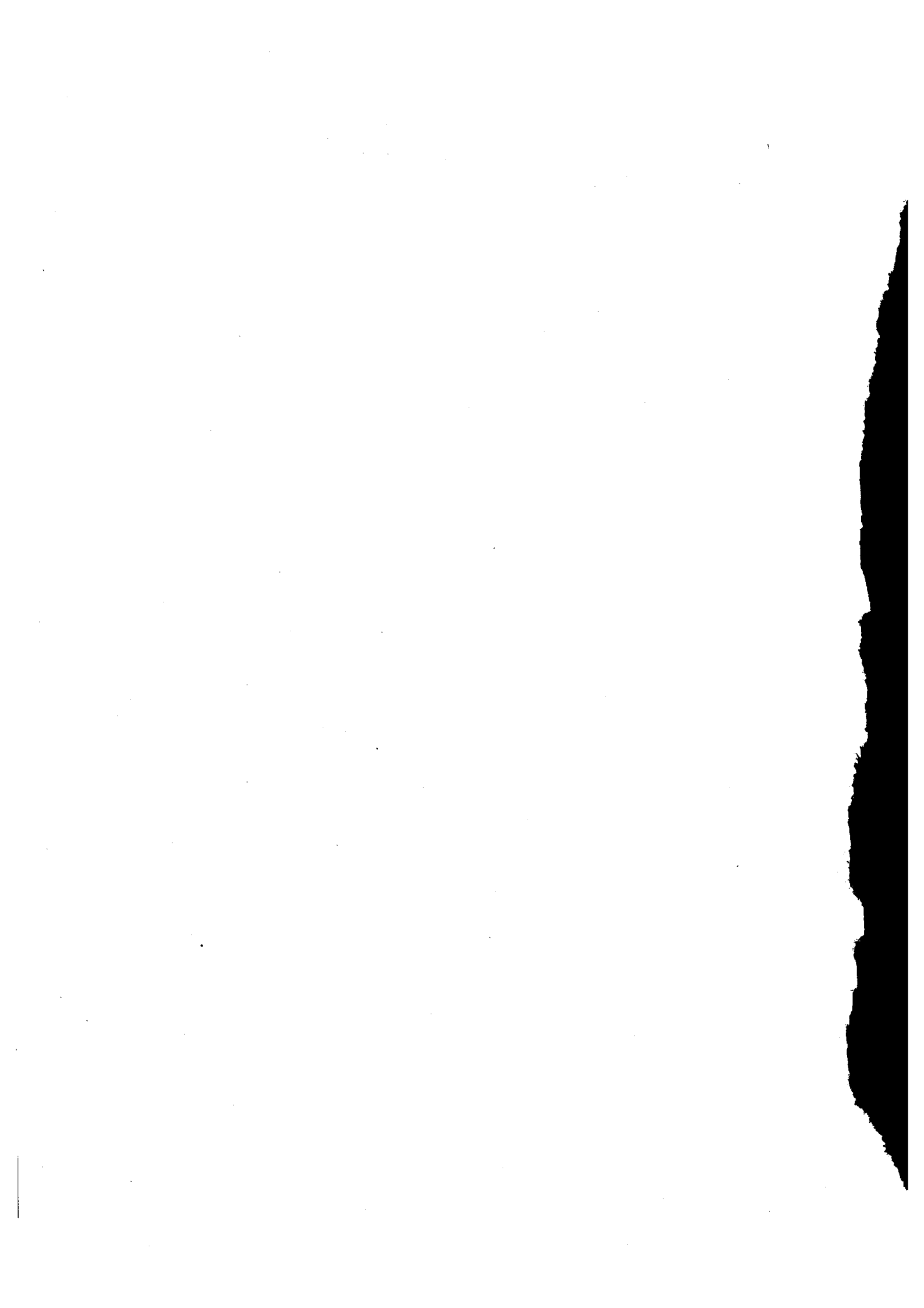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黃性模

(略歴) 忠南大學校社會學科教授 및
中央日報社東西問題研究所諮問

刊行責任 鄭錫弘 (心理戰担当官)

國土統一院



目 次

序 言

一. 統一論議와 言論의 役割	7
1. 大韓民國의 言論과 統一問題	9
2. 北韓의 言論과 統一問題	14
ㄱ. 機關紙의 一般的 特徵	14
ㄴ. 機關紙의 批判機制	18
ㄷ. 黨意志의 表現으로서의 言論	22
二. 南北韓 統一戰略比較	31
1. 南韓의 統一政策	31
2. 北韓의 統一政策	36
ㄱ. 統一問題에 對하여	38
ㄴ. 赤十字會談에 對하여	42
ㄷ. 調節委員會에 對하여	44
3. 새로운 對立	49
ㄱ. 南北調節委 會議	49
ㄴ. 南北赤十字 會談	54
三. 北韓의 對南戰略과 言論攻勢	59
1. 對南宣傳煽動의 基本方向	59

2. 对南煽動의 内容	67
3. 最近의 煽動内容	69
四. 南北提議의 差斗 言論政策	76
1. 对话性格의 段階的 变化	76
2. 南北主張의 差斗 对策	80

序 言

解放으로 인한 国土分斷 自体가 美蘇 兩超強大國의 世界分割 戰略의 所産이었지만은 6.25 戰爭이라는 이데오로기의 代理戰爭으로 인하여 二次大戰後의 冷戰體制下에서 한 民族이 熱戰體制로 變質하게 된 最初의 本보기로서 韓民族이 世界歷史에 記錄되게 되었다는 事實은 부정하기 어렵다. 回顧컨데 1948年 거이 同時에 서울과 平壤에서 樹立된 政權은 國民政權이라기 보다는 東西對立의 先走者의 役割을 第一次적으로 遂行해야 했던 것이다. 正確하게 美蘇對立의 國際力學에서 出産한 이 政權들의 앞길에는 對極線으로 向하는 軌道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大國의 利益에 따라 同族相殘의 싸움을 해야 했던것도 피할 수 없는 宿命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宿命은 따지고 보면 이 政權들이 大國依存에서 存続하려고 하는 限에 있어서만 스스로가 만들어 낸 宿命이 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運命일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民族이 가지는 <一般意志> (J.J.Rousseau)인 民族統一意志를 遂行하는 限에 있어서만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점차로 世界史의 흐름이 가르쳐 주는 바가 되었다. <一般意志>의 主体者가 人民이라 한다면 <一般意志>의 等閑 또는 默殺은 必然적으로 反民主라는 基本性格을 內在하게 되는 方向으로 發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公理다.

冷戰體制 위에서 구축된 이데오로기, 學門, 意識構造 또한 말한바

도 없이 体制自体에 對해서 良機能하는 基本性格을 가지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거니와 社会生活의 日常性을 表現하는 저널리즘은 大量傳達의 技術的 發展과 더불어 社会意識의 表面을 全般적으로 鍍金한다. 거기 에다 매스·미디어가 政府에 의해서 源泉적으로 統制된다면 社会意識의 表面은 政府의 意志로서 塗色되는 것도 사실이다. <統一問題>는 南北의 統活機能중에서도 가장 統制의 焦點이 될수 밖에 없는 事況이기 때문에 이 問題에 對한 매스·미디어의 作用은 때때로 社会意識의 實態와 遊腐하여 作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6.25라는 戰爭의 性格은 外來 이데오로기戰爭이었기 때문에 이 戰爭過程에서 提示된 戰爭理由는 傳統的 社会意識과는 無關한 世界에서 주어지고 따라서 그것을 受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論理를 學習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 論理는 公교롭게도 傳統社会의 連續性를 斷切하면서도 世界的 企摸의 冷戰体制에 適應하는 作用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一般的 背景에서 南北間의 言論機能의 特性 - 특히 統一問題와 關聯해서 - 밝히고 이 特性속에서 相互間의 主張 - 실은 政府의 意見에 불과하지 마는 - 의 差異點을 比較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南北韓의 異質化의 深度를 測定하는 하나의 測間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異質化의 深度를 客觀化시킨다는 그 자체에 目的을 들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異質構造의 解体를 前提로 하는 作業이어야 할것은 말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의 焦點은, 우선 이 異質構造의 解体를 어떠한

基準없이提起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基準을 設定하는 根拠를 <客觀的>, <中立的> — 一般的으로 社会科学方法論을 論할때 登場하는 Jargou을 使用한다면 — 으로 提供하는 豫備探索에 들수 밖에는 없었다. 그렇다손 치드래도 몇가지 問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30年間の 南北對立과 그것을 back-up하는 世界的 冷戰 體制속에서는 그 對立을 期待하고 深化시키고 또 그 對立속에서 發生하는 事實들만을 經驗的 資料로서 再構成하는 接近方法이 優勢하게 發展되어 왔기 때문에 몇가지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 例컨대 convergence theory 같은 것 — 對立解體 모델은 거의 全無하다는 사실이 北韓研究에 있어서 既히 發表된 研究들의 論理을 하여금 原理적으로 準拠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있고

둘째로, 北韓研究에서의 直接資料가 될수 있는 新聞과 放送의 內容의 連續的 蓄積이 容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整理된 形式으로 되어 供覽되는 資料에는 判斷에 영향을 줄수 있는 解說이 添加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客觀的 評價를 어렵게 하고 있고

셋째로는, 解體 모델을 하나의 可能하고도 獨自的인 研究方法論으로서 認識받을 수 있는 政治的, 社會的 條件이 形成되고 있지 않다는 問題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研究가 試圖하는 解體 모델이 統一問題研究에서 基礎的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는 認識은 불가피하게 北韓研究에 새로운 領域을 追加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意味에서는 이 豫備的 探索研究의 形式 自体가 研究論文의 格式을 따르기 보다는 問題點 提示에 충실하려고 하였고 또 그러니 만치 때로는 術學的인 意味밖에 없는 參考資料의 銘示에서도 구태여 格式을 차릴려고 하지 않았다. 勿論 出處를 밝힐 必要가 없는 資料가 參考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添加해 두어야 할 것이다.

一. 統一論議와 言論의 役割

二次大戰終結時까지 單一民族 單一國家로 있다가 大戰의 直接的 結果로서 分斷民族으로 있게 된 民族은 韓民族과 獨逸民族이다. 베트남이 그후 分斷되기 시작해서 베트남戰爭이란 오랜 試練 끝에 再統合되었거마는 韓民族과 獨逸民族은 여전히 分斷狀態를 지속하고 있다. 그間이 分斷民族들은 끝내 韓民族 兩國家라는 形態로 발전하게 되었다. 兩國家사이에는 모든것이 서로 異質化過程을 밟아 왔다. 그 異質化過程은 異民族間의 差보다도 훨씬 큰 差를 보이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共通性은 끝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言語이다. 兩國家사이의 政治思想 制度의 差에서 이 共通語가 多小間 修正될 수 있는 사실은 發生하여서도 그 修正으로 인해서 意思疎通이 不可能한 정도는 아니다. 1) 本質적으로 言語만은 兩國家間의 民族的 共通性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制度의 差에도 불구하고 南北間의 統一問題에 관한 意見이나 態度의 差는 言論의 多量傳達方法을 통해서 表現되며 그것을 共通語라는 code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間의 統一問題論議에 있어서 言語障壁라는 問題는 現在까지는 存在하고 있지 않다. 다만 問題는 그內容이다.

註 1) 同一한 統治機構 밑에서라 할지라도 時間의 흐름에 따라 日常語나 流行語部分은 많은 變化가 있는 법이다.

周知되어 있는바 처럼 韓半島에 있어서의 南北兩政權은 冷戰時代의 產物이었기 때문에 統一問題는 처음부터 分斷된 領域內에서의 政治權力을 確立하는 名分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北韓의 <民主基地>論이 그것이 였고 그것은 또한 民主基地를 北韓地域內에서 하루 빨리 建設한다는 課題와 統一이라는 課題가 結付되므로서 民主基地論의 民族的 正当性을 主張하려는 先取行動(anticipation)로서 나타난 것이다. 38線이 他律的인 分界線이라고 한다면 <民主基地>論 또한 蘇聯의 10月革命 以後의 모델의 模倣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休戰線으로 民族分裂이 內國的으로 더욱 促進되었다면 統一問題는 一層 더 政略的 先取口號로서 前面에 나타나야 할 問題로 變하게 된다. 南北의 社会体制가 제각기 自律性을 가지면 가질수록 統一問題는 先取競争의 焦點이 되었다.

問題는 統一問題가 이와 같이 最重要課題로 등장할수록 支配層의 言語統制問題는 政策의 中心課題가 된다. 그러나 言語이란 그것이 基本的으로 社会調整裝置인 以上에는 統治機構의 하나로서 機能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南北關係가 解放後 現在에 이르기 까지 <國家安保>概念에서 取扱되어 왔다는 現實은 統一問題가 安保問題의 核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言論의 統一問題에 대한 關係는 가장 直接的으로 政策을 反映할 수가 없는 構造가 形成된 것이다. <言論의 自由>가 統一問題에서 만은 留保되는 것은 客觀的 事實이 될수 밖에 없다. 그렇다 손 치드래도 言論自由의 當爲性마저 留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 大韓民國의 言論과 統一問題

歴史的으로 저널리즘의 發生과 그 發達을 말할것 같으면 그 特性이 大衆生活의 日常性을 反映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日常性의 變化를 기민하게 대변하고 새로운 可能性을 시사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意思表示의 方法은 市民階級이 양상·폐집과의 싸움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採択하고 발전 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生命은 自由에 있다는 固定觀念마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市民階級の 鬭爭手段인 言論이 市民階級の 이데오로기와 混雜된데서 나오는 觀念이다. 原則적으로 말해서 言論의 生命은 그 主張과 批判性에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立場의 差에 따라서 思想內容이 달라질수도 있는 것이다.

韓國의 旧韓末以後의 社会發展의 歴史가 市民階級發展으로서만 說明할 수 없는 理由를 가진다면 韓國에서의 現代的 言論發達이 自由의 伸張이라는 角度에만 說明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1883年 10月에 統理衙門 伝文局에서 漢文으로 「漢城旬報」가 나와 官報의 役割을 한 것이 최초의 近代的 新聞이라고 하나 그것은 大衆生活의 日常性을 反映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新聞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오히려 1896年 4月7日에 發刊을 보게된 「獨立新聞」이 英國的 影響을 받아 편집, 발행되므로서 近代的 新聞의 性格을 띤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마저도 278호로 終刊되고 말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市

民階級の 力量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獨立新聞」의 功績은 新聞이라는 弘報手段이 集團意思를 널리 전파하는데 가장 좋은 方法인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시 「신문 출현의 洪水時代」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06년에 日本의 統監府政治가 시작되자 그 이듬해에 말서 公安法과 新聞紙法이 發布되어 新聞發行이 許可制로 되고 出版物의 事前檢閱이 實施되었다. 이 사실은 실로 韓國에 있어서의 新聞과 統治者(그것이 外勢이든 政府의 形態이든 간에)와의 基本關係가 되었다. 이 關係에 새로운 次元이 엿보이게 된것은 1945年 9月11日 美軍政司令官 J.R. 해지中將의 言論政策에 대한 言及이 있게 되었을 때 엿으나 그가 그의 政策發表에서 言論의 自由, 檢閱制의 철폐를 부르지만서도 「반면에 新聞과 言論이 治安을 방해하는데 까지 미칠 때에는 適當한 措置」를 할것을 잊지 않고 添附하였다. 결국 美軍政이라 해도 1946年 5月29日에 軍政法令 第88號를 公布해서 新聞發行과 出版物에 대한 종래의 登錄에서 부터 許可制로 되돌아 간 것이다. 6.25戰爭이란 政府로서 言論統制를 強化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6.25戰爭이 터지고 한달후에 政府는 「言論出版 特別措置令」을 公布하고 10月에는 大幅的으로 言論機關을 정리하고 1951年 1月부터는 刊行物에 대한 事前檢閱이 國防部 政訓局에서 하게 되었다. 6.25戰爭이 休戰으로 들어간 후에도 政府로서는 北韓의 對南戰略과 國內統合이라는 두가지 理由에서 言論統制의 必要性을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되었다. 自由黨政權은 北韓의 對南戰略과 國

내에서의 對政府批判을 同一範疇안에 넣어 彈壓의 口實을 찾으려는 傾向을 처음부터 보여 왔으나 그것이 1955년에 드디어 와서 表面化하기에 이르렀다. 改憲案의 非正常的 通過를 둘러 싸고 그 후로는 言論은 주로 對政府批判의 方向으로 흘렀으나 1957년에 가서는 政府로서는 이 傾向에 대한 終極的 方案으로 保安法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하게 된 것이다. 이 改正案이라 하는 것은 間諜概念을 擴大解釋할 수 있게 하여 國內에서의 對政府批判을 쉽사리 間諜概念에서 解釋할 수 있게 하였던 만큼 문제는 극히 심각하였다. 「24波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 改正案 通過去를 둘러싼 소용도리는 예도 불구하고 自由黨政府는 그 基本態度를 緩和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自由黨執權期間동안 日刊紙 廢刊 9件, 停刊 8件, 言論人拘束 36名, 連行調查 7名, 기타 雜多한 事件들이 發生한 것은 이러한 背景에서 설명될 수 있다. 行政處分の 法的根拠는 軍政法令 第88号였다.

第二共和國時代가 韓國言論史上 처음으로 言論自由時代로 評價되고 있으나 이럴때라 할지라도 그당시 國務總理였던 張勉은 「……말씀 많은 言論自由의 限界問題에 對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北韓괴뢰의 앞잡이들이 <朝鮮人民報>나 <解放日報>를 발행하겠다고 登錄을 신청해도 막을 도리가 없을 만큼 完全한 言論出版의 自由가 許容되고 있습니다」(1961.3)라는 연설을 하여 言論規制의 根拠를 北韓의 對南 戰略에 둘러는 傳統的 態度를 보였다. 5.16 이후 「民族日報事件」

이 革命裁判에서 「共産黨 資金으로 新聞을 發行함으로써 特殊 反 國家行爲를 했다」는 判決에 따라 동신문의 發行人이 死刑을 당하 였다는 사실은 張勉國務總理의 意志를 5.16 軍事政府가 實踐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解放 30 餘年の 歷史過程에서 大韓民國政府樹立으로 우리 政府가 세워지고 第一共和國時代, 第二共和國時代, 第三共和國時代를 겪어 왔고 政權의 性格도 다소간 變質되어 왔지만은 한가지 뚜렷한 連續性이 있다면 그것은 韓國言論이 政府의 反共이데오로기의 武器로서 存在하여야 한다는 當爲性이 었다. 크게 보면 그것은 피하기 어려운 歸結點이기도 하였다. 二次大戰後 이른바 冷戰때문 에 — 특히 冷戰體制의 所産인 南北의 兩政權의 性格때문에 — 統治者는 처음부터 思想의 多樣性 보다는 共産主義나 民主主義나하는 二分法을 言論에 대해서 強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反共이데오로기의 武器로서의 言論이 對北關係에 있어서 彈力性을 상실한 基本的인 理由는 南北의 對立關係에 그 源泉이 있다고 할수 밖에 없다. 그렇다 손 치드래도 그것은 問題를 야니 남길수가 없는 것이다.

첫째, 言論이 反共이데오로기의 武器로서 存在한다는 것은 言論이 冷戰型으로 機能해야 한다는 것인즉 言論自体가 冷戰型으로 되면 國家意識의 表面도 冷戰型으로 될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南北對立과 分裂自体가 民族의 課題라면 이것으로 좋다. 그러나 비록 名分上이라 할지라도 民族統一이라는 課題가 提起되는 限에 있어서는 冷戰型言論과 統一問題는 그 方法論에 있어서 <平和的>

인 것이 前提가 되는 이상에는 自我撞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冷戰型저널리즘은 對共記事나 論說에 있어서 言論으로서의 自由를 스스로 制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結果로 심한 스테레오·타일化 한다. 그리고 그 原型을 주로 6.25 戰爭이라는 極限狀況에서 굳어져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大衆生活의 日常性和 遊離되는 逆說的 性格으로 落着되는 것이었다. 言論이 日常性和 떨어져서 極限狀況에서만 反共武器로서 作樂해야 하기 때문에 言論의 共產主義觀에서는 그 殘忍性, 獨裁性, 侵略性, 陰謀性 등만이 浮刻되는 것도 當然한 일이다.

7.4 南北共同聲明이 있었을 때 不適應과 自己分裂現象을 보였던 것은 國民大衆이라기 보다는 言論界였다는 사실은 言論界자체내에서 公開的으로 論하여진 바는 없지마는 간단하게 黙殺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은 留意해야 할 문제다. 여기서 한 言論人의 韓國言論의 歷史를 思想史的으로 檢討한 結論을 소개해 두고자 한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正確하고 客觀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非日常的 面에서 이미지 傳達이 되고 이것이 社會의 通念처럼 태버린다면 이것은 言論이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가지가지 功績과는 달리 하나의 逆機能的 現象이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신문이 民衆의 意識生活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이러한 意識이 時代의 이데올로기 生産에 土壤口實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인 바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문은 언제나 眞實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신문을 의미하는 저널리즘의 <저널>은 語源이 <日記>라는 뜻이다. ……그달의 現實을 제대로 記錄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日記가 아니다. 즉 新聞이 아니다……眞實을 自由롭고 公正하게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은 事實과 다른 기록을 한다는 것을 뜻하며 歷史가 虛偽로 기록된다는 것을 뜻한다……虛偽意識의 造作에 寄與할 것이다. 2)

2. 北韓의 言論과 統一問題

ㄱ. 機關紙의 一般的 特徵

北韓의 政治制度를 朝鮮勞動黨一黨支配體制(獨裁)라고 보는 한에 있어서는 言論統制의 源泉이 勞動黨에 있다는 것은 감출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言論自由>를 論할 수 있는 資本主義制度下의 言論이 政治權力과 分産되며 存在할 수 있다는 理論이 나오게 된다. 흔히 말하는 共產言論과 自由言論의 差가 그것이다. 그러나 言論自由란 市民階級이 旧體制와 鬪爭할 때의 武器였으며 市民階級이 決定的으로 近代社會의 主權階級이 된 이후 부터는 言論自由는 經濟發動의 自由를 위한 武器로 變質하였다.

註2) 宋建鎬, 「思想史的으로 본 韓國言論」, 저널리즘 '76 가을호, 한국기자협회발행, P.45.

어느 時代나 마찬가지로 었지 마는 資本主義社會에서도 集團間的 利害關係는 相克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言論自由 또한 党派性を 면할 수가 없었다. 결국 言論自由란 立場의 多樣性を 構成的으로 許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資本主義下의 言論自由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相當한 程度까지 相互 寬容하다는 것은 果然 共產黨下의 言論과 區別될 수 있는 理由가 된다. 資本主義를 原理적으로 否定하는 勞動者新聞, 社會主義新聞이 얼마라도 存在하는 것이다. 流刑中の 레닌의 指令에 따라 「이스크라」를 發刊한 것도 資本主義國家에서 었다. 그러나 共產黨의 新聞은 執權과 동시에 餘他的 모든 新聞을 許用하지 않는다는 排他性에 眞正한 意味에서 資本主義言論과의 差가 있는 것이다.

더 具體적으로 말한다면 共產黨新聞은 一般的인 의미에서의 新聞이라기 보다는 機關紙의 典型이다. 그 典型性은 두가지 點에서 可能하게 되는데, 첫째로 共產黨機關紙는 일반적으로 新聞이 그러한 것 처럼 情報나 意見의 傳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情報와 意見 疎通過程을 組織過程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機關紙로서의 新聞은 同時에 組織者로서 党的 課題를 수행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報道의 客觀性이라든지 迅速성과 같은 것은 처음부터 重要的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共產黨機關紙가 가지는 철저한 党派性은 該當 共產黨이 彈壓下에 있을 때는 非合法 報道發動과 組織活動을 하면서 檢閱에 通過되지 않는 事實이나 報道禁止된 事項들을 폭로 비판하는 完全한 反體制性을 發揮하나 일

단 執權한 후에는 그 反体制性은 正反對로 極端的인 体制擁護로 轉換하는 것이다. 어쨌든 非寬容性이 특색으로 부각 되지마는 그 러니 만치 他 言論을 彈壓하고 許容안할 뿐만 아니라 모든 言論을 独占하는데 있다.

레닌과 말더노프間的 論爭이 論爭의 性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意見의 差에 따른 組織活動에 그 目的이 있었다든지 1900年 12月에 「이스크라」가 發刊되었을 때 그 目的은 「組織의 連結을 이어 놓」기 위한 것이었다. 든지 하는것은 1912年 5月 5日 레닌이 스탈린에게 「프라우다」發刊을 命命하면서 한말은 이미 1910年 「이스크라」 第4号에서 發表한 것과 같은 內容이 었다는 사실은 레닌이야말로 共産党新聞 概念의 創始者 였다고 할 수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들의 活動의 出發點, 所望스러운 組織을 만들어 내기위한 實踐의 第一歩, 다시 말해서 活潑하게 發展하고 깊어지고 또 넓혀지기 위한 열쇠, 그것은 中心的인 政治新聞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들은 무엇 보다도 新聞을 必要로 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다.

果然 新聞은 共産党的 눈으로 보면 이데오로기關爭에 있어서 最重要한 武器다. 그러나 概念的으로는 新聞이 가지는 두개의 機能 즉 煽動의 機能과 宣傳의 機能은 多분히 分産되는³⁾ 性格의 것이

註3) V.I.Lenin, was tum? Brennevde Fragen unserer Bewegung, in: Angewahlte werhe in zwei Banden, I. Ausgabe, Berlin 1961, Bd. P. 165에서 煽動과 宣傳를 구별하고 있다.

었다. 그러나 苛酷한 彈压속에서는 新聞의 煽動性과 宣傳性은 分離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壓縮되어 一體가 되어 作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숨김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新聞의 煽動性과 宣傳性이 機能分化를 할 수 있었던 것은 執權 이후의 일이다. 그것은 주로 黨幹部의 敎養問題와 관련되어서 레닌에 의해서 提起된 일이 지마는 후에 와서 (1948) 理論적으로 새로이 定立되었다. 카라스니코프⁴⁾에 의하면 「党内宣傳은………幹部들에게 맑스·레닌의 理論으로 武装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社会發展과 政治鬭爭의 法則에 관한 知識」으로서 敎養시키는 것이며 「불세비키들의 政治的 警覺心を 提高시키는」데 目的이 있으며 反面에 煽動은 「人民을 이데오로기의 政治적으로 敎育하는 가장 重要한 道具이며, 黨과 大衆의 結束을 鞏固히 하는 手段이며 勞動大衆에게 黨의 政策을 說明해 주는 가장 重要한 方法이며 그들에게 黨과 소비에트 政府의 決定과 呼訴를 充足시켜주기 위해서 勳員하기 위한 手段이기도 하다」라고 區別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看過해서는 아니되는 重要한 點이 나타난다. 그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宣傳과 煽動의 概念区分은 있다고 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이 두개 사이에는 구태여 區別해야 할 本質的인 差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세비키運動의 全歷史에

註 4) Kajasnikov, Die grundzuge der bolschewis tischen Agitation (Bibliothek des agitators), Berlin 1951, pp.9, 18, 19 이후

서 나타나고 있는바 처럼 宣傳과 煽動의 概念 자체가 黨이 客觀的으로 處해있는 條件에서 決定하는 政策에 의해서 定義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黨政策이 宣傳과 煽動의 內容을 規定하고 指針的 存在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共産黨 機關紙는 基本的으로 黨政策의 遂行機能만을 가지는 것이지 新聞으로서 独自の 編輯과 意見을 가질수 없는 것이다. 다만 機關紙가 一次的으로 레닌이 말하는 바와 같은 宣傳의 機能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煽動의 機能을 수행할 것인가는 政治情報에서 決定될 問題이기 때문에 레닌의 宣傳과 煽動의 概念区分은 事實상 黨에 의한 機關紙統制의 可能性을 넓게 確保했다는 뜻 밖에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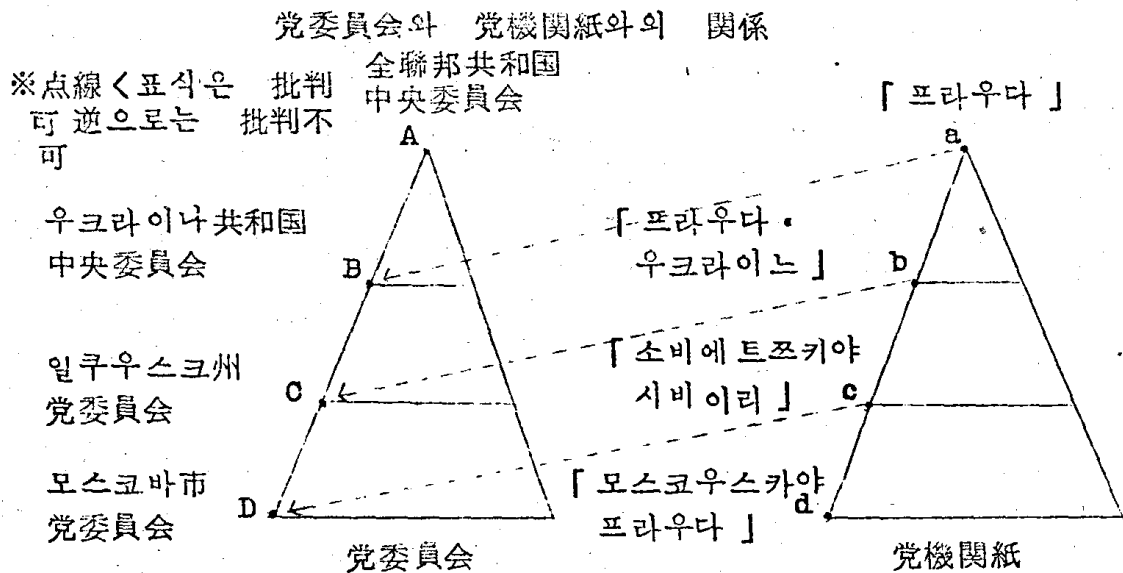
ㄴ. 機關紙의 批判機制

共産黨支配下에서는 利有制度가 許容되지 않기 때문에 메스·커뮤니케이션 施設은 모두 國家所有로 되어 있다. 따라서 國家만이 情報(原料)를 所有할 수 있으며 國家만이 그것을 加工配達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가 黨에 의해서 運營管理되고 있다는 사실은 言論機關이 國家所有라고는 하지마는 실은 그것은 名目上的의 일이며 實際적으로 黨에 의해서 所有管理되고 있는 것이다. 소聯의 경우 일반적으로 新聞의 發行配達은 共産黨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の 許可가 必要하다. 「프라우다」나 「이스베니차」紙는 黨機關紙, 政府機關紙이기 때문에 新聞의 編輯配達이 黨이나 政府(黨에도 統合된다는 것이 事實에 가깝다)에 의해서 直接 運營管理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록 餘他の 新聞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黨과 政府以外」에서 경영하는 신문이라는 뜻에 불과하다. 모든 團體가 黨과 政府의 直接 또는 間接統制下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 「言論의 自由」論爭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言論의 批判性이라는 것은 機關紙에서는 構造的(制度的)으로 排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소聯에서는 어느 機關紙가 發行되는 경우 그 新聞과 發行母體인 機關(黨, 政府 및 團體)과의 사이에는 批判의 序列이 確立되고 있는 것이 一般的 狀況이다. 5) 그 關係를 黨機關紙와 黨委員會와의 關係에서 보면 黨委員會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보면 黨委員會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黨機關紙를 指導해야 한다는 原則에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圖表로서 이것을 說明하면 아래와 같다.



註 5) 이하 辻村明編, 「現代ソヴェト社会論」 日本國際問題研究所刊, 1970. pp. 141 ~ 144 에 의거함.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上記 圖表의 左側 피라미트는 行政單位에 따른 階級の 行政레벨을 의미하고 그 頂上에 全連邦共産黨 中央委員會 A가 있고 그 밑에 各己 共和國마다 黨中央委員會 B가 있고, 그 밑에 地方, 州單位의 行政單位가 있어 各각기 黨委員會를 구성하고 있다. 圖表에서 나오는 例는 시베리아의 일쿠우스크州이며 일쿠우스크州黨委員會 C가 있다. 그 밑에 市 또는 地區 行政單位가 있고 여기서 莫斯科市가 代表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行政單位의 피라미트에 對應해서 黨機關紙의 피라미트가 形成되고 있다. 全聯邦共産黨 中央委員會에 對應하여 그 機關紙인 「프라우다」 a가 있고 烏克蘭 共和國共産黨中央委員會에 對應하여 그 機關紙 「프라우다·우크라이네」 b가 있고 일쿠우스크州 黨委員會에 對應하여 그 機關紙 「소비에트즈카야·시비리」 c가 있고 莫斯科市黨委員會에 對應하여 그 機關紙 「莫斯科우스카야·프라우다」 d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黨機關紙의 編輯部는 發行母體인 黨委員會의 任命에 의해서 構成되는데 있다. 黨的으로 信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任命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人事面에서 이미 黨委員會에 의한 統制가 制度的으로 保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黨委員會決定의 貫徹이 完全無欠하게 保障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만치 여기에서 批判의 規則까지도 確立해 놓고 있어야 할 必要가 생긴다. 그 規則이라 하는 것은 원래 序列上으로는 同格이라고 할 수 있는 黨委員會와 黨機關紙 編輯部 사이에 意見의 對立이 생

것을 때 機關紙編輯部는 그 新聞의 紙面을 利用하여 發行母體인 同格의 黨委員會의 決定을 黨委員會의 決定 또는 承認없이 批判할 수 없다는 規則이다. 그것은 「黨委員會가 新聞을 指導해야 하는 것이며 그 逆은 있을 수 없다」라는 原則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이미 스탈린時代에서도 「자·노오비·세에 벨」紙 編輯部 자아토프가 이 原則을 어겼기 때문에 1937年 9月 25日字付 黨中央委員會 決定으로 그를 譴責解任했던 일이 있었다. 그는 州委員會의 機關紙 「자·노크비·세베엘」紙의 紙面을 이용하여 黨州委員會의 決定을 批判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그가 州委員會決定에 不滿이 있어 批判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同格의 州委員會를 批判하고자 할 때에는 그는 黨規約에 따라서 紙面에서 批判하기에 앞서서 黨中央委員會에 대해서 그 문제를 提起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新聞에 낼 權利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方法이 있다. 그것은 만약에 黨機關紙 編輯部가 發行母體인 黨委員會와 意見이 對立했을 때 그 다른 意見을 同格인 委員會에 提起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上級の 黨機關紙에 投書하여 紙面에서 公開되든지 하는 수는 있다. 다만 自己의 新聞에서는 發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批判의 方向은 点線 < 表識의 方向밖에 可能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a는 D를 批判할 수 없으며 다만 上級 機關紙인 C 또는 b 또는 a에 投書해서 發表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라도 最上級 機關紙 a에 投書하면 된다는 말

이다. 그렇다고 해서 a (프라우다紙)라 해도 그 發行母體인 全聯邦共産黨 中央委員會의 決定을 批判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理論적으로나 實際上으로도 全聯邦共産黨 中央委員會의 決定은, 누구도 批判할 수 없으며 그것이 可能하는 것은 反體制運動 (따라서 非法活動領域)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全聯邦共産黨 中央委員會의 決定 (例컨대 1957.7의 모로토프 및 마렌코프의 追放, 1964.10의 후르시체프 追放같은 것)이 내려지면 「프라우다」의 編輯長이라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紙上으로 反對 또는 批判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全聯邦共産黨 中央委員會의 決定을 소聯全體 內에서는 絶對不可侵의 것이 된다.

이것이 共産黨이 黨의 指導權을 보장하기 위해서 確立해 놓은 黨委員會와 機關紙와의 關係이며 餘他の 團體의 機關紙라 할지라도 團體內에 있는 黨員을 통해서 類似한 原則을 지킬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黨의 統制는 貫徹되고 있는 것이다. 放送의 경우도 이 關係는 마찬가지로 確立되어 있는 것이다.

ㄷ. 黨意志의 表現으로서의 言論

北韓의 모든 分野에서 그러한것 처럼 言論分野에서도 소聯의 모델을 模倣하려는 傾向은 뚜렷하였다. 레닌이 執權前 鬪爭時期에 있어서 「이스코라」나 「프라우다」를 發刊하여 이데오로기 鬪爭에서 重要로서 武器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金日成도 벌써 빨치산 活動時代부터 言論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었다는 것을 証明하려고

하고 있다.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直屬 黨歷史研究所의 論文集속의 「革命的 出版物에 대한 金日成同志의 指導」라는 林春秋의 論文에서 金日成은 이미 1962年 2月 南湖頭會議에서 革命的 前途를 내다보고 広範한 反日準備를 하기 위해 그 實踐方法의 하나로서 政治新聞과 一連의 定期刊行物을 發刊할 計劃을 세워 同年 12月 1日 祖國光復會의 機關紙로서 月刊 「三·一月刊」을 내고 1937年 5月에는 革命軍의 國內 政治新聞으로 「曙光」을 내고 동시에, 民族解放同盟機關紙 「火田民」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曙光」 第1号에서는 金日成 자신이 「朝鮮共產主義者의 任務」라는 理論論文을 실었다고 한다. 그런데 「三·一月刊」은 이와는 內容이 좀 달라서 주로 光復會員과 末端組織大衆을 啓導라고 해설하는 것이 主任務였다고 한다. 金日成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다고 한다. 그 以外에도 國內 週聞新聞으로서 「중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議員들의 自己批判用이다. 말하자면 宣傳紙와 煽動紙를 끌고루 配合하여 <革命活動>을 했다는 것을 主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解放후에 北朝鮮勞動黨 機關紙 「正路」를 直接 創刊한 것도 金日成이라고 하고 있다. 「正路」가 그후 「로동신문」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으니까 北朝鮮勞動黨 (現在의 朝鮮勞動黨)의 機關紙의 產母는 金日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레닌이 했던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固定觀念을 세우기 위한 일이지마는 金日成 自身도 충실하게 레닌의 思考方式의 所有者라는 것

을 나타내고 저 했던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金日成의 言行에는 처음에는 철두철미 레닌의 생각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例컨대 레닌의 宣傳, 煽動의 概念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을 1962年3月8日 金日成이가 勞動 黨 中央委員會 第5期 第3次 全員會議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전부의 첫째가는 임무는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입니다. 선전부는 이미 병이난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나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革命果業 遂行에서 積極性을 내도록 예방약과 보약을 주어야 합니다…… 간부들에 대해서는 교양 사업을 더 해야 합니다. 간부들은 맑스·레닌주의 이론과 黨政策을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하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宣傳概念)

「어떤 동무들은 선동하는 연설을 한마디 하고 영화나 하나 돌리고는 선전사업을 다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동사업이지 선전사업이 아닙니다…… 선전부에서 둘째로 중요한 사업은 선동사업입니다. 선동사업은 군중의 기세를 돋우고 그들을 革命果業 遂行에로 直接 발동시키는 사업입니다. 선동사업도 천편일률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조건, 革命任務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煽動概念)⁶⁾

註 6) 김일성 저작선집 3, pp.30, 304 ~ 5

좀더 理論的으로 整理된 宣傳과 煽動의 概念은 「정치용어사전」에서 전개되고 있다.

「선전은 당 사상사업의 한개 형식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黨政策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선동과 선전이 다른 점은 일정한 진리를 주로 理論的으로 把握하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선전은 선동에 비하여 알리려고 하는 내용의 理論的 심도가 보다 깊고 論理的이며 체계적이다.

선전은 구두, 출판물, 라디오 및 기타 수단들을 통하여 진행된다.....」

「선동은 대중성을 띠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들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의 본질을 호소의 방법으로 전달 해설하며 그들을 동원하고 고무 추동하는 것을 符徵으로 한다.....」

선동은 강연 당화와 같은 구두의 방법으로는 또는 출판물·라디오와 같은 수단들을 이용하여 진행된다.

선동사업은 시간과 조건, 革命任務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⁷⁾

결국 金日成이나 金日成의 代弁機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基本的으로 레닌의 概念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앞서 소聯의 黨委員會와 黨機關紙와의 対応關係를 圖式化

註7)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P.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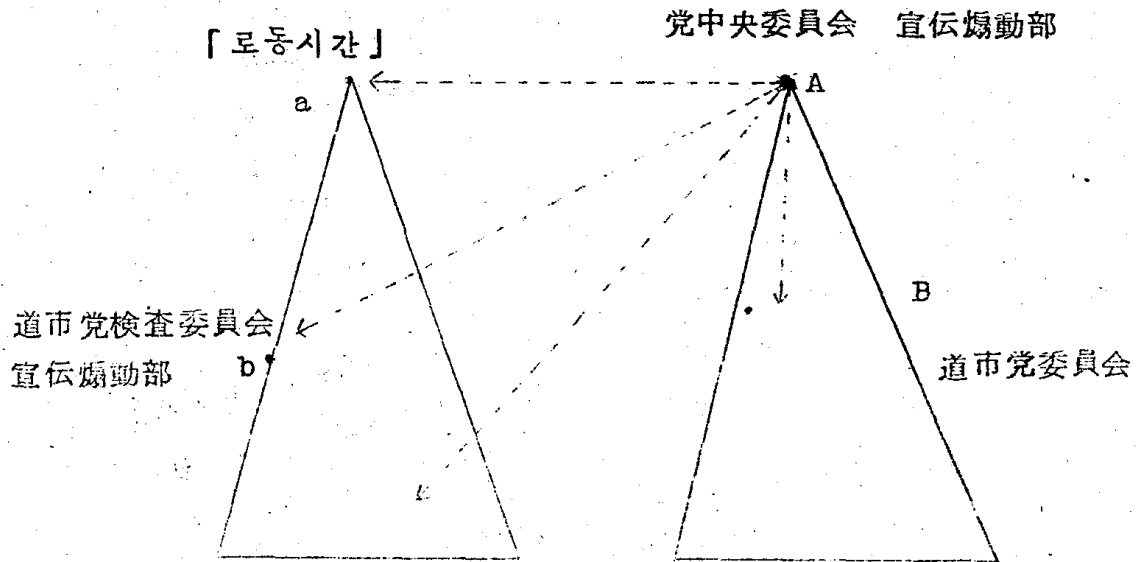
한 것과 같은 關係가 北韓에서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소聯의 그것과 다른것은 소聯은 16個 自治共和國으로 構成되어 있고 各己 共和國 하나하나가 地區別로 나눌수 있을 만큼 地域이 廣大하기 때문에 A,B,C,D라는 行政單位別로 區別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北韓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고 또 道黨別로 機關紙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中央黨機關紙 一色主義가 실시될 수 밖에 있는 것이다.

機關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黨員이기 때문에 黨員인 이상에는 黨規約에 따라 活動할 수 밖에 없다. 勞動黨規約 第2章 11 項에 「黨員은 黨組織에 服從하며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며 下級組織과 上級黨組織에 服從하며 모든 黨組織은 黨中央委員會에 絶對 服從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바 처럼 黨階位秩序에서 下降式으로 服從만을 要求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上下組織間의 意見의 差가 存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곧 上級黨에 의한 責罰만을 結果하는 것이다. 그렇다 손치드래도 同級間에 意見差가 생기고 批判할 일이 이러나는 경우에는 다만 「自己意見을 該當 黨委員會에 提起할 수 있」어도 모든 「決定은 該當 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第1章, 5 黨員의 權利 項(5))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로동신문」의 主筆이라 하여도 「로동신문」 發行母體인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決定이나 批准없이 紙面使用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重大한 黨原則의 違反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黨, 行政機關 및 新聞과의 關係를 아래 圖表에서 說明하기로 한다.

黨과 機關紙의 關係



※ 點線 및 < 表는 指示, 批判의 方向

黨中央委員會 宣傳 煽動部에서 中央新聞(로동신문, 민주조선)과 中央放送(조선중앙 제1방송, 조선중앙 제2방송, 평양방송, 평양 제2방송)을 관장하고 있다.

소련의 構造에 比해서 심히 單純化 되어 A만이 直接的으로 B는 물론이오 a, b까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上向의 意思發表(批判)는 全然 不可能하다. 모든것을 黨中央委員會의 決定만이 <絶對的>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의 모든 新聞과 放送에서 勞動黨支配 즉 金日成統治에 不利한 것이 一切 表現되지 못하는 것은 黨中央委員會의 決定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

니까 批判的 意見은 물론이요 事實이나 事件조차도 嚴格하게 党中央委員會의 檢閱를 받고 있는 것이다. 「로동신문」이 言論의 自由를 가진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따라서 統一問題에 관한 「로동신문」의 論調는 바로 그것이 그대로 党中央委員會의 決定과도 같은 것임을 이러한 構造에서 理解할 수가 있는 것이다. 8)

發行母체가 最高人委 및 內閣으로 되어 있는 「민주조선」이나 平壤市人委로 되어 있는 「형양신문」 그리고 기타 團體의 新聞 (例컨대 「로동청년」「로동자신문」「祖國統一」「소년신문」「농업노동자신문」「교원신문」「농민신문」「민주청년」「문학신문」「기술경제」「상업신문」「조국전선」「조선인민군」「교통신문」「건설신문」「보위신문」「체육신문」「수산신문」「통일신보」 그리고 各大学마다 大學新聞 各道마다 各道日報가 있으나 이것들의 論調와 方向은 「로동신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各團體속에 있는 黨員의 영향력 행사로 가능한 것이다.

言論統制는 이와같은 構造속에서 制度的으로 完璧한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도 不足해서 實務的인 次元에서 具體的인 統制가 加해지고

註 8) 中國에 比해서 北韓에서는 党内變革이나 鬪力鬪爭이 있을때 中國의 文化革命에서 볼수 있었던 바와 같은 大字報나 壁新聞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党中央委員會 構成이 金日成忠誠分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党中央委員會의 決定을 反映하는 「로동신문」에서 金日成에게 不利한 記事가 나올수가 없었고 따라서 壁新聞과 같은 制度外的 表現方法을 쓸 긴급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여진다. 反面에 文化革命時 毛沢東과 劉小奇的 關係에 있어서 党中央委員會가 劉小奇追放을 決定할 만큼 中央委員會가 毛沢東追從者一色이 아니었기 때문에 「人民日報」를 毛沢東이 충분히 活用할 수 없었고 따라서 制度外的方法 즉 避新聞, 紅衛兵動員같은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짐.

있는 것이다.

아래는 機關紙內部統制와 黨과의 關係를 圖式的으로 보여 주는 것이지만 이 關係는 언제나 往復作用을 함으로서 黨決定의 實踐與否가 체크되는 것이다.

下降道路

1. 黨의 決定
2. 內閣出版總局新聞課
3. 編輯部
(主筆 및 副主筆)
4. 局長 및 副局長
5. 部長
6. 記者

거꾸로 黨決定遂行確認過程은 6, 5, 4, 3, 2, 1 順序로 체크된다. 그러나 이러한 統制는 黨과 行政府의 二重統制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新聞社 자체내에서의 統制로 加味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背景에서 볼때 北韓의 新聞, 放送의 統一論調를 중요시 하는것은 新聞, 放送이 獨特한 意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注意를 끈다기 보다는 新聞放送의 統一論調가 바로 黨의 統一政策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의 新聞, 放送은 그대로 北韓政權의 表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동신문」의 新聞으로서의 自律性欠如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源泉的으로 「로동신문」社가 하나의 新聞이라고 하기 보다는 印刷所라는 의미는 이 新聞의 記事소오스가 거의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사실에서 立証된다. 예컨대 1972年 9月15日字 「로동신문」은 그때마침 서울에서 9月14日부터 南北赤十字會議가 있었던 때라 紙面의 많은 部分이 이 문제를 취급하였다. 그중 두터러진 것은 「서울에서 9월14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제공으로 된 記事다. 「로동신문」사로서 서울에 특파

원을 보냈으면 「특파원발」記事로서 게재하면 될것을 꼭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제공」이라 해야되는 이유는 「조선중앙통신」만이 뉴스源의 提供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北韓言論의 素材源은 「조선중앙통신」이다. 물론 「조선중앙통신」은 그 자체의 編輯委員會가 있고 여기서 檢閱通過된 뉴스源만이 리라이즈되고 그것이 新聞, 放送의 內容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중앙통신」제공의 뉴스를 게재했을때 그 궁극적인 責任을 「조선중앙통신」이 질것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은 그 자체가 編輯委員會를 가지고 있다. 「로동신문」의 6面末尾에 「編輯委員會」라고 編輯責任主体를 밝히고 있는것을 「로동신문」사로서도 責任을 지는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중앙통신」제공의 기사를 실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兩者의 編輯委員會가 責任지게 된다. 完全히 二重的 自体檢閱制이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의 編輯委員會는 党的 直接的 統制 밑에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上記 9月15日字 「로동신문」의 記事를 分類해 보면 「로동신문」이 얼마만큼 「조선중앙통신」에 依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전체 6面으로 되어 있는 이달의 「로동신문」은 특별한 編輯態度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外國에서 온 祝電을 제외하고는 모두 44종의 記事로서 짜여지고 있다. 이중 社說 個人記名의 글 및 르폴타쥬등 4개의 記事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조선중앙통신」제공의 뉴스를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記事種類 양 90%가 「조선중앙통신」제공인 것이다. 나머지 社說 및 論文, 르폴타쥬라 할지라도 編輯委員會의 檢閱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실로 一般讀者의 손에 쥐어진 「로동신문」이란 完璧하게 党政策의 反映인 것이다.

二. 南北韓 統一戰略 比較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南韓에 있어서 言論自由가 어떠한 것인간에 統一論議가 國家安保의 最重要問題로 간주되고 있는 이상 그리고 韓國의 言論이 6.25 戰爭 이후 反共先走者로 自認하고 있는 이상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해서는 前調를 같이 해온 것 만큼은 否定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한 言論의 意見에 多樣性은 없다고 하겠다. 北韓 또한 統一을 目的으로 하는 對南戰略은 北韓政權存続을 위한 가장 重要한 理由로서 說明되고 있느니 만치 이問題에 대해서 勞動黨이 相異한 文張을 北韓 言論 學術研究에서 許容할理 萬無하다. 그래서 韓半島의 統一論議에 限해서 말하자면 南北社會가 공히 政府나 黨의 統一政策에 對해서 제각기 다른 意見을 가지고 政府나 黨과 葛藤을 가지고 있지 않다. 南北 兩政府間의 統一政策의 差는 그대로 南北社會 言論의 統一問題에 대한 意見의 差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 統一問題에 關하는 限 言論의 固有한 統一案이란 存在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하겠다.

1. 南韓의 統一政策

二次大戰後의 東歐諸國의 衛星國家群化現狀과 中國大陸의 統一過程에 힘 입은 스탈린의 사주도 있고 해서 金日成은 民族的으로 하등의 妥當性없는 武力統一方法을 扞한 것이 6.25 戰爭이 었다.

그 방법이 失敗에 돌아가자 南北의 他律的 分斷은 自律的 分裂이라는 結果를 자아 냈다.

그후 부터 現在까지 사실상 南北關係란 軍事的 對決狀態만이 있었는지 其他의 여하한 正常關係도 存在하지 않았다. 심지어 國際우체체제를 통한 書信交換조차도 不可能한 狀態다. 60年代 後半紀를 점철했던 各種의 事件들은 이 軍事的 對決狀態가 그 限界點에 도달하리라는 印象조차 주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時急한 段階的 課題는 이 軍事的 對決狀態를 완화해서 戰爭의 可能性을 弱화시키는 것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이 나올 때 까지는 서서히 條件을 造成하는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正熙大統令은 戰爭을 抑制하고 南北間의 「善意的 競爭」을 提意하였는가 하면, 그로 부터 1年後인 1971年 8月 12日 崔斗善 大韓赤十字社 總裁는 北赤에 대해 「家族찾기 運動」을 할것을 그의 特別聲明에서 提議했다.

그때는 國內外的 條件이 北韓의 이른바 傳統的 統一政策 즉 暴力革命路線의 堅持를 無意味하게 만드는 客觀的 情勢가 조성되어 있었던 때라 北赤에서도 곧 肯定的 反應을 보여 9월에 豫備會談을 할것에 合意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合意는 分斷 4半世紀 歷史上 처음 있는 일이라 그 후의 事態好轉의 可能性을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

이로부터 또 1년이 지난 1972年 7月 4日 에 南北共同聲明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간의 南北間の 秘密接觸狀況을 보면 南北間 政權担当者들이 단 순 이데오르기의 對立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不可能한 交涉態度를 보이고 있다. 1971年 11月下旬에서 부터 약 5個月동안 南北 赤十字社 代表間の 秘密接觸에서 南北赤十字會談, 南北政治會談의 可能性이 打診되었고; 또 그것을 實現시키기 위해서 李厚洛, 情報部長의 平壤訪門도 協議되었다.

1972年 5月2 ~ 5日에 걸친 李厚洛部長의 平壤訪門時 金日成, 金英柱와 더불어 南北間 懸案問題가 論議되었고 아울러 南北共同 聲明 發表問題도 檢討되어 金英柱를 서울에 招待하는 일까지 있게 하였다. 곧 이어 朴成哲도 同年 5月29日 ~ 6月1日 사이에 서울을 訪門하고 約束대로 7月4日에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에 共同 聲明이 發表되었다.

共同 聲明의 全文은 널리 알려진바와 같지 마는 여기서 明示하고 있는 統一則(自主原則, 平和原則, 民族團結原則)은 사실상 冷戰體制를 否定하고 民族統合으로 向하려고 하는 原則的 轉換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劃紀的인 것이 었다. 南北對話의 門이 열린 것이다. 7·4共同 聲明이후의 對話進行狀況은 아래와 같다.

南北赤十字會談

1. 豫備會談을 1971年 9月20日 ~ 1972年 8月11日 사이에 25回 開催했으며 同期間동안 實務會談 16回

開催하였다.

2. 1972年 8月 31日 ~ 1973年 7月 12日 사이에 本會談을 7回 開催하였다. 1973年 8月 28日 金英柱의 對話 中断 聲明이 나왔다.
3. 1973年 11月 28日 ~ 1974年 5月 29日 사이에 代表者會議을 7회에 걸쳐 開催했다.
4. 1974年 7月 10日 ~ 1977年 7月 15日 사이에 實務會議가 23次에 걸쳐서 開催되었다.

南北 調節委員會

1. 1972年 5月 2日 ~ 1972年 6月 1日 사이에 李厚洛·朴成哲 사이에 秘密理에 交換訪問이 있었음.
2. 1972年 10月 12日 ~ 1972年 11月 30日 사이에 共同委員長會議가 3次에 걸쳐서 開催되었다.
3. 1972年 11月 30日 ~ 1973年 6月 14日 사이에 調節委員會 會議가 3次에 걸쳐서 開催되었다.
4. 金英柱의 對話 中断 聲明이 있은후 (1973.8.28) 1973年 12月 5日 ~ 1975年 3月 14日 까지 副委員長會議가 10次에 걸쳐서 開催되었으나 그 이후 無期延期狀態에 있음.

이상과 같은 南北對話의 進行過程에서 韓國政府則은 實質적으로 南北間의 平和關係를 保障하는 統一政策으로 이를 뒷바침 할려는

繼統的인 努力을 表示하였다 .

우선 1973年 6月 25日 朴大統令은 平和統一이 民族의 地上 課題임을 再確認하고 그것을 위해서 南北韓이 서로 內政不干渉, 不侵略할것을 다짐하고 緊張緩和와 國際協調를 도모하며 統一에 支障이 되지 않다고 認定되면 南北韓 UN同時加入도 무방하다는 것을 骨子로 하는 7個項으로 된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하여 그것을 韓國政府의 平和統一의 先行條件으로 삼는다는 것을 밝혔던 것이다 .

半年後 朴大統令은 1974年 1月 18日에 있었던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間 平和定着을 위해서 새로운 協定이 必要하다던 이미 提議된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 첨가하여 現行 休戰協定의 効力이 存続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南北相互不可侵協定」 締結을 提議했다 .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과 「南北相互不可侵協定」 締結提議는 1974年 8月 15日 朴大統令의 光復節慶祝辭를 통해서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으로 集約表現되었다 . 이 3大原則은 韓國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한 基本立場을 밝힌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說明해 둘 필요가 있다 .

첫째 不可侵協定締結을 통한 韓半島平和定着保障

둘째 南北對話의 誠實한 進行과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을 통한
南北間의 相互門戶開放 및 信賴의 回復

셋째 이상의 條件들을 바탕으로 하여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自由總選舉에 따른 統一實現

결국 이 「平和統一3大基本原則」은 緊張緩和→平和定着=戰爭不發
→統一第一段階作業이라는 段階的 現實的 態度를 나타 내는 것으로
극히 合理的 思考方式의 表現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南韓의 言論 및 學術理論을 總合해 보면 이 「3大原則」의
대두리를 벗어난 主張은 없다. 國論統一의 唯一한 部分이 統一政
策部分이라고 말해도 過言이 아니다. (技術的 技業的 問題를 除
外하고는)

2. 北韓의 統一政策

7·4 南北共同聲明精神의 具顯으로서 南北 赤十字會談이나 南
北調節委員會會議가 시작되었지 마는 政治會談의 性格을 띠고 있는
南北調節委員會 副委員長會議가 75年 3月 14日 第10次 會議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 無期延期狀態에 있는 것은 勿論이요
赤十字會談도 實務者會談의 水準에서 日可日否만 뒷푸리하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7·4 共同聲明에 내포 되어 있는 統一意志는
政權水準에서 끈임없이 挑戰을 받고 있음을 實証해 주는 것이며 冷
戰體制, 熱戰對決의 遺産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말 해주는 것
이다.

그것은 왜 그럴까? 窮局的으로는 北韓의 統一政策이 對南戰略의
延長線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對南戰略이라고 하면 解放

直後부터 金日成이 政策으로 내놓은 「民主基地」論에서 부터 시작 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出發했기 때문에 6.25 戰爭이라는 武力統一 方法에 까지 發展하여도 矛盾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6.25 戰爭과 같은 同族相殘戰도 「祖国解放戰爭」이라고 高言할 수 있었던 것이다. '70年代'에 들어와서는 越南事態의 終息形態를 我田引水格으로 利用하려고 한 나머지 越南의 武力統一過程을 그대로 韓半島에서의 武力統一政策의 正当性を 強化하려는 것으로 認識했다. 그리고 그 認識이 客觀的으로는 誤謬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軍事的解決為主主義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는 修正形態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은 이미 周知되고 있는 客觀的 事實이다. 그리고 보면 7·4 共同聲明後의 南北對話過程은 原則적으로 北韓의 對南戰略의 變更을 意味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政權의 心理構造의 二重性은 7·4 共同聲明이 나오는 前날인 3日에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을 지킬것을 放送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對美平和協定을 提議함으로써 統一을 위한 眞正한 對話相對方인 南韓의 國際法的 地位를 格下하려는 試圖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위한 國際的條件의 조성을 위한 것이 分명한즉 이 모든것이 7·4 共同聲明의 三大原則에 어긋날 뿐이다.

그러면서도 7·4 共同聲明後의 北韓當局者들의 言論을 통한 態度 表明에는 玉石을 가리지 못할 部分들이 許多하나 그러면서도 今일에 事態를 豫告할 수 있는 充分한 근거는 되는 것이다.

몇 가지 實例를 들어 보자 .

ㄱ . 統一問題에 대하여

1 . 金日成 ('72.1.1. 新年辭) 「 社會主義 經濟建設 과 國防建設에서 거둔 이러한 成果들은 共和國北半部の 革命基地를 더욱 強化하며 南朝鮮革命과 祖國의 自主的 統一을 促進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 」

「 萬一 南朝鮮 爲政者들이 ……참다운 朝鮮사람의 立場에 돌아 선다면 우리는 그들의 過去를 묻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조국 통일문제를 平和的으로 해결할 것이다 」

2 . 「 로동신문 」社說 ('72.1.1) 「 南朝鮮에서 모든 外國軍隊를 철수시킨 다음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없이 朝鮮사람 자신의 손에 의하여 自主的으로 民主主義的 原則에 의해서 南北統一을 實現해야 한다 」

3 . 金日成 , ('72.1.10 . 日本 「 読売新聞 」記者와의 質問答弁中) 「 民族内部問題인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가 外勢의 干涉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 그리고 戰爭의 方法이 아니라 平和的인 方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4 . 조선중앙 제 2 방송 ('72.3.18)

가장 중요한 문제

「 통일후 우리나라에 어떠한 사회제도를 세우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의해

서 選擇할 問題인 것이다 .

5 . 「민주조선」('72.4.21) 「平和統一을 이룩하자면 우선 민족적 재난의 根原因 外勢의 侵入을 共同으로 막아야 하며……」

6 . 「로동신문」('72.4.28)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현시기 우리당과 인민앞에 나서고 있는 2大革命課業의 하나이며 当面 최대의 民族的課業이다 . ……金日成同志께서 1945年 10月 우리黨 創立大會에서 내놓으신 유명한 戰略은 美帝의 南朝鮮 強占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朝鮮革命은 켈 수 없이 連結된 두地域帶를 統一體로 보고 먼저 條件이 有利한 北半部에서 革命과 建設을 빨리 추진시켜 全國革命의 튼튼한 基地를 꾸미며 그의 積極的인 支援 밑에 條件이 不利한 南朝鮮에서 革命力量을 지대우고 革命運動을 發展시키며 南北 革命力量의 戰略的 配合에 의하여 祖國을 統一하고 革命의 終局的 勝利를 이룩할 것을 基本內容으로 한다」

7 . 金日成 솔즈베리의 質問에 答辯('72.5.26) 「지금 南北사이에 理念과 信仰의 差異들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우리는 民族의 團結을 위하여 이러한 差異를 초월하여야 된다고 본다 .

南朝鮮에 어떤 政治制度를 세우겠는가 하는것은 南朝鮮人民들 自身이 決定할 問題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祖國이

統一된다 하더라도 朝鮮이 南北의 現在社会制度가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이러 저러한 信仰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朝鮮中央 第2放送」 (1972.7.3)

「南朝鮮革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平和的 方法만 있을 수 없다. 革命이란 원래 革命勢力과 反革命勢力間의 치열한 階級鬭爭인 것이다. ……人民的 政權을 爭取하기 위한 南朝鮮革命은 절대로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할 수 없다. 南朝鮮革命은 오직 革命的 暴力에 依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9. 朴成哲 (7.4 共同声明에 즈음한 記者会見에서) 「外勢의 侵略과 干渉을 排制하고 우리民族이 단결하여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는 스스로 平和的으로 해결될 것이다.」

10. 「로동신문」 (7.4 共同声明 다음날 7.5)

「国内反動들 親일파, 親미파, 극단분자들은……비록 겉으로 平和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도 현상이나 유지하고 분열을 영구화하며 자기의 權力을 保存하는데만 계속 급급할 수 있다」

11. 「朝鮮中央 第2放送」 (1972.7.6)

「南朝鮮에서 反革命을 때려 부수고 革命的 勝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革命力量을 繼續 強化해야 한다.

革命力量을 充分히 마련하여야 원수들의 反革命攻勢를 제때에 물리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革命的 大事變을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다.

12. 「로동신문」社說 ('72.8.15)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오직 모든 애국력량이 동원
되어서 거족적인 鬪爭을 벌임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시키
며 平和를 破壞하고 戰爭을 고취하는 안팎의 원수들의
責動을 反對하는 完強한 鬪爭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
다.」

13. 吳振宇 ('72.9.8 . 99 節演說)

「나라의 統一을 위한 鬪爭, 이것은 朝鮮人民과 外來侵略
者들과의 鬪爭이며 애국자와 매국자, 애국력량과 반동세력
간의 鬪爭이며 主體思想과 事大主義 사이의 치열한 鬪爭
입니다.」

14. 金日成 日本의 毎日新聞記者 質問에 答弁, ('72.9.17)

「우리가 北半部の 社會主義制度를 南朝鮮에 강요하지 않
으며 南朝鮮當局者들이 우리에게 資本主義制度의 復旧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무엇때문에 같은 民族끼리 서로 싸우
겠는가?」

15. 「로동신문」論評 ('72.9.25)

「조국의 자주적 平和統一을 위한 鬪爭은 外來侵略勢力과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民族主體的 力量간의 鬪爭이며 主
體의 思想과 事大主義간의 鬪爭이다.」

16. 平壤放送, ('72.12.3)

「……비록 지난날 조국과 인민앞에 罪를 지은 사람이거나 지금 罪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참다운 民族的 立場에 돌아선다면 누구를 慕論하고 그의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하며 그를 소홀히 함이 없이 아량있게 포섭해야 한다. 主民들의 社会·政治的 構成이 복잡한 南朝鮮의 오늘 社会実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赤十字會談에 대하여

1. 金日成, '73.1.1 新年辭

「南北사이의 어떠한 接觸도 거부하여온 南朝鮮当局者들도 大勢의 压力에 밀리워 南北赤十字 會談의 마당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板門店에서 열리고 있는 南北赤十字團體들 사이의 豫備會談은 때늦은 감도 있고 거기에서 討議되는 問題의 테두리도 制限된 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朝鮮사람끼리 모여 앉아 민족의 내부분제를 討議하게된 만큼 매우 의의 있는 일입니다.」

2. 金日成, 日本 読毎新聞記者 質問에 대한 答弁 '72.1.10)

「南北赤十字 團體들 사이의 會談을 成事시키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3. 「로동신문」 ('73.3.3 논문)

「……南北赤十字團體들의 會談은 朝鮮사람 自身の 손으로 民族内部問題를 解決하려는 우리黨과 共和國政府의 시종일관한 노력의 빛나는 結實이다.」

4. 「로동신문」 ('73.6.17 社說)

「家族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과 그 밖에 問題들을 本會談의 議程으로 確定한 것은 앞으로 열릴 南北朝鮮赤十字團體代表들의 本會談이 나라의 人爲的인 分裂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겨레들의 苦痛을 덜어주고 우리 民族 最大의 宿望인 祖國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意義를 갖는다.」

5. 「朝鮮中央 第2放送」 ('73.8.3)

「우리側의 提議가 가장 積極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은 우리側이 제기한 17個의 討議項目中 南北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을 招請할데 대한 問題하나만 놓고도 알 수 있다. … 이러한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代表들이 平壤과 서울에서 열리게 될 本會談 첫 會議들에 참가한다면 南北間의 이해를 促進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위협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6. 「로동신문」 ('73.8.30 .論文)

「首領님의 8.6 演說이 있는 후 정세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환되어 갔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 그 어떤 接觸과 對話도 反對하여 오던 南朝鮮 當局
者들로 하여금 赤十字를 통해서나마 南北接觸의 길에 나서
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7. 「民主朝鮮」 ('73.9.23)

「國土가 兩斷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겨레의 고통을 가시
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民族의 統一問題를 내놓고 그
어떤 다른 人道主義를 云云할 수 있겠는가?」

8. 「朝鮮中央 第2放送」 ('73.10.29)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人道主
義問題는 조국통일이라는 민족내부문제 해결과 直接 연결되어
있고 위 두가지 問題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ㄷ. 調節委員會에 대하여

1. 朴成哲. 7.4 共同聲明에 즈음한 記者會見 「祖國統一 問
題를 해결할 目的으로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하기로 合意한
것은 이번 南北 사이의 秘密接觸에서 이루어진 가장 귀중
한 골자의 하나입니다.」 「南北調節委員會의 性格과 그 機
能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 우리의 統一問題를 實際的으
로 풀어나가는 威力한 協商機構로 되어야 한다고 認定한다.」

2. 朴成哲 ('73.11.6. 記者會見)

「調節委員會는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北과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 사이에 広範한 政治的 交流를 實現하는 문제, 文化 및 社會的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문제,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여 軍事的 衝突을 방지하고 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는 問題, 對外活動에서 共同步調를 취하여 單一民族으로서의 民族的 矜持를 천명하는 문제 등을 처리 결정하며 그 進行을 調整하여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민주조선」 ('72.12.5 사설)

「南北調節委員會의 構成은 思想과 理念制度의 差異를 초월하여 北과南이 反目과 對立分裂을 끝장내고 合作과 團結을 이룩하며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統一問題를 外勢에 依存함이 없이 어디까지나 우리 朝鮮사람 自身の 힘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자주적 立場과 民族的 尊嚴을 다시금 보여주었으며 北과南사이의 關係改善과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4. 「로동신문」 ('72.12.5)

「南北調節委員會가 構成되게 되므로서 北과 南사이의 政治 協商이 常說的인 民族 共同機構을 통하여 正常化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라의 자주적인 平和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구체적인 對策들을 세우고 今後 實現을 保障할 수 있게 되었다.」

「南北調節委員會가 担当 遂行하여야 할 議題는 北과 南의 政治·經濟·文化·軍事·外交分野에서의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할데 대한 問題가 明白히 지적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明白하게 해두어야 할것은 北韓의 매스·미디어의 資料源이 되고 있는 「朝鮮中央通信」은 7·4 共同聲明이 나온 3일 후 「南北共同聲明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한사코 反對하여온 南朝鮮 反動들이 무릎을 꿇고 降伏한 것을 알리는 宣言이다」라는 해설을 냈다는 일이다. 「무릎을 꿇고 降伏」하는 相 처라고 보면서도 7.4 共同聲明의 三原則을 一특히 平和의 原則一 強調하고 있는 北韓當局者는 精神分裂症이 아니면 「祖國의 平和的 統一이 至上課題」라고 말하는 것을 7.4 共同聲明을 對南赤化戰略의 戰術化하는 凶計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南北對話의 앞 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끼고 있었던 것이다.

3. 새로운 対立

7.4 共同声明의 3原則의 具顯을 위한 南北對話가 進行되면 될 수록 南北은 제각기 이 3原則을 내세우면서 相對方을 비난하는 口實만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 나게 된다.

7. 南北調節委 會議

南韓의 提議內容과 北韓의 態度變化

南北調節委員會가 構成 될때 까지는 우선 共同声明發表 ('72.7.4) 南北直通電 架設 및 運用節次에 관한 合議 ('72.7.4) 와 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 ('72.11.4) 등 매우 順調로운 進行을 보였 으나 막상 同委員會가 開催된 이후 無期延期에 들어 가기까지 南北關係에 관한 合意는 단 한가지 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相互中傷, 誹謗 (방송, 休戰線 拡声器放送) 및 罷拉撤布中止에 관한 合意 ('72.11.4) 였다.

1. '72.11.4 의 合意事項도 北韓側이 1975.1.23 돌연 誹謗 放送을 再開하였다고 南韓側의 電話抗議 ('75.1.24) 가 있 은 후 中止하였다.
2. 調節委員會 第2, 3次會議 ('73.3.14 ~16, '73.6.12~14) 에서 南韓側이 双方 多角的 交流와 社会開放을 提議하였으 나 北韓側은 政治協商만 成立되면 解決될 문제라고 하면서 회피하였다.
3. 調節委員會 第2, 3次 會議에서 南韓側은 調節委員會내에 經濟, 社会, 文化委員會를 構成하고 實務者會議을 만들것을

提議하였으나 北韓側은 5個分科委員會를 同時에 構成하자고 맞섰다.

4. 第3次會議에서 南韓側은 板門店 共同事務局 建物の 共同建築을 提案했으나 北韓側은 이를 묵살했다.

5. 第2次 副委員長會議 ('73.12.19) 에서 南韓側은 調節委員會에 政黨·社會團體 代表를 각각 10名 以內로 할것을 提議했으나 北韓側은 調節委擴大 改編 또는 現規模 調節委와 併行해서 政治協商會議을 열것을 主張하여 맞섰다.

6. 第5次 副委員長 會議에서 南韓側은 調節委의 無條件 早速 正常化를 要求하였으나 北韓側은 아래와 같은 正常化 前提 條件들을 제시하여 本格的인 舌戰段階에 들어가게 되었다.

6.23 宣言取消

反共政策中止

美軍撤収

反政府人士 彈圧中止

金日成의 5大綱領受諾

政黨·社會團體代表 및 各界各層 人士로 調節委員會 擴大改編 또는 政治協商會議을 併行

7. '75.10.13 南韓側은 電通으로 調節委 第4次 會議을 平壤에 또는 板門店에서 開催할것을 提議했으나 北韓側은 묵살했다.

8. 第1次副委員長會議 ('73.12.5) 에서 南韓側은 西海5島

- 海上에 대한 緊張造成에 대하여 抗議하였으나 北韓側은 그것을 軍停委에서 다른 문제라고 拒絶했음.
9. 第3次 副委員長會議 ('74.1.30)에서 南韓側은 西海漁船 守元號 격침 및 납치에 대한 사과와 즉각송환을 요구했으나 北韓側은 間諜船에 대한 自衛措置라고 拒絶하였다.
10. 第7次 副委員長會議 ('74.6.28)에서 南韓側은 東海 警備艇 (863 號) 격침사건에 항의하였으나 北韓側은 間諜船에 대한 自衛措置라고 거절했다.
11. 第8次 副委員長會議 ('74.9.21)에서 南韓側은 8.15 狙擊事件을 항의했으나 北韓側은 이를 造作된 事件이라고 거절했다.
12. 第9次 副委員長會議 ('75.1.8)에서 南韓側은 休戰線에 걸친 南侵用 터널構築에 대해서 항의했으나 北韓側은 이를 造作된 일이라고 거절했다.
13. 第10次 副委員長會議 ('75.3.14)에서 南韓側은 T.V. 라디오放送에 대한 妨害電波發射에 대해 항의하고 共同調查團 構成을 提案했으나 北韓側은 오히려 南韓側이 電波妨害를 하다 있다고 거절했다.
14. 第10次 副委員長會議에서 南韓側은 東海間諜船事件, 西海 警備海域 侵犯事件에 대해서 항의했으나 北韓側은 漂流船舶에 대한 不法砲擊이라고 反論하였음.
15. '76.4.12 南韓側은 南北 古美術品 및 考古學資料의 交換

展示會 또는 共同展示會 開催를 提議했으나 北韓側은 오히려 對話 破綻責任謀免하려는 欺瞞宣傳이라고 北韓側 代弁人이 聲明을 발표하였음.

이상과 같이 調節委員會의 進行過程은 마치 停戰委員會議의 再版처럼 되어 그 어느 하나도 7.4 共同聲明精神을 反映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反面에 北韓側의 提議 또한 南韓側에서 받아 드릴 수 없는 것만을 골라서 하고 있는 印象을 주고 있다.

北韓의 提議內容과 南韓側의 反應

1. 共同委員會 第2次會議('72.11.2 ~ 4)時 金日成面談 및 調節委 第1次會議('72.11.30 ~ 12.2)에서 北韓側은 頂上會談開催를 요구하였으나 南韓側은 그것을 相互理解가 增進되면 可能할 수 있는 일이라고 答弁했음.
2. 調節委 第2.3次會議('73.3.14 ~ 3.16 및 '73.6.12 ~ 14)에서 北韓側은 軍事的 對峙狀態解消를 위한 5個項目 즉 武力增強, 軍備競爭中止, 雙方軍隊 10萬以下로 減축 및 軍備大幅縮小, 外國으로 부터의 一切의 武器·作戰裝備·軍需物資輸入中止, 美軍등 外軍撤収와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武力不行使를 保障하는 平和協定締結 및 上記提議執行을 위한 雙方 參謀 總長을 包含한 軍事人員을 南北調節委員會에 망라하든가 軍事分科委員會 構成을 提議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南韓側은 이 모든 問題들은 信賴回復後 討
議될 문제라고 反應했다.

2. 調節委 第 2 . 3 次會議에서 政治協商會議를 열것을 提議하였
으나 南韓側에서는 그것은 統一問題를 現實的으로 解決하는
方法이 될수 없음을 지적했다.

3. 第 9 次 副委員長會議 ('75.1.8) 에서 北韓側은 調節委員
아래級으로서 實務者 2 ~ 3 名으로 構成되는 實務會議開催를
提議하였으나 (이것을 調節委會議를 열지 않고 實務會議만
으로 會談을 지속시킴으로서 調節委를 格下할려는 意圖에서
있음) 南韓側은 오히려 調節委機能을 正常化하면 實務會議
를 새로 構成할 必要가 없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北韓側의 提議도 하나 合意없이 第 10 次 副委員長
會議 ('75. 3. 14) 이후 현재까지 無期延期狀態에 있게 되었
다.

ㄴ. 南北赤十字會談

南赤側の 提案內容과 北赤側の 反應

1. 第 1 次 實務會議 ('74.7.10) 에서 南赤側은 實踐可能한 人道問題 優先解決을 主張하고 第 8 次 本會談을 合意한 대로 서울에서 無條件再開할 것을 要求하였으나 北赤側은 그러기 위해서는 南韓側의 環境改善이 先行條件이 된다고 하면서 서울의 紛囂氣를 改善할것을 요구했다.
2. 第 21 次 實務會議 ('77.2.11) 에서 南赤側은 서울會談에 不応한다면 板門店과 같은 第 3 의 場所에서 할것을 提議하였으나 北赤側은 이미 双方에서 合意한 場所 (서울) 이 있는데 왜 他場所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거절했다.
3. 第 3 次 本會談 ('72.10.24) 에서 南赤側은 議題 第 1 項 事業方案으로서 赤十字社 仲介로 壽入依願書, 回報書交換 및 當事間 相互確認을 提議하였으나 北赤側은 赤十字仲介하며 國內往來, 直接壽人하게 하고 當事者 一方의 呼訴에서 成事되게 하라고 응수하였음.
4. 第 19 次 實務會議 ('76.6.9) 에서 南赤側은 南北離散家族 省墓訪門團 交流를 秋夕, 新正, 旧正, 寒食等 各節을 기해서 南北에 各 500 名씩 一週間 滯留할것을 提議하고 北側事情이 如意치 않다면 南에서 北으로 먼저 보낼수는 있다고 提起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北赤側은 省墓團訪門問題는 基本問題를 討議하는데 難關을 造成하려는 술책이며 議題와는

無関한 面害無益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5. 第1次 実務會議 ('74.7.10) 과 第6次 実務會議 ('74.11.29) 에서 南赤側은 60歲 以上の 老父母를 對象으로 하여 相逢, 訪門, 書信交換케 하자고 提議하였으나 北赤側은 議題討議를 混亂에 빠트리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였다.
6. 第8次 実務會議 ('75.2.28) 에서 南赤側은 家族写真交換을 提議하고 老父母와 子女間에서 부터 시작하여 家族, 친척으로 擴大시키자고 요구하였으나 北赤側은 事業縮小企圖라고 비난했다.
7. 北韓側은 '76.8.31 부터 南北直通電話를 杜絶시켰음.
8. 南赤側은 第3新進号送還 및 關係資料提示를 5次에 걸쳐 對北放送通知文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처음으로 送還에 協調한다는 反應이 나왔다. (第3新進号는 '76.10.14 全員 送還되었음)
9. 南赤側은 第19次, 21次 実務會議 ('76.10.19 ~ '77.2.11) 에서 南北直通電話 및 板門店 連絡事務所 運營正常化促求를 요구하였으나 北赤側은 一切言及을 회피하였다.
10. 南赤側은 第2次 代表會議 및 第4次 代表會議 ('74.2.24 및 '74.4.3) 에서 수원 32.33号 漁船事件 解決을 요구하고 生死, 健康狀態를 통보해주고 漁夫, 漁船, 유해送還을 促求하였으나 北赤側은 그것은 間諜船이며 反共謀略艦艇이며 會談을 難關에 빠트리겠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11. 南赤側은 第5次會議('74.4.29), 第1次 實務會議(74.7.10) 및 第5次 實務會議('74.11.5)에서 KAL機 拉北人士 送還을 요구했으나 北赤側은 묵살했다.
12. 南赤側은 第1次 實務會議('74.7.10)에서 東海 警備艇事件을 解決하는 方法으로 生存者 名單通報 및 送還과 拘留中 人道的待遇保障을 요구했으나 北赤側은 南韓의 对内政治 危機를 모면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敵對意議을 고취하고 對話를 파탄에 몰아넣으려는 偵察謀略事件이라고 하였다.

北赤側의 提案과 南赤側 反應

1. 第3次 本會議('72.10.24), 第1次 代表會議('73.11.28), 第1次 實務會議('74.7.10)에서 北赤側은 基本立場으로서 赤十字會談繼承의 前提로 條件, 環境, 서울紛囂氣 改善등은 내세웠으나 南赤側은 그것을 赤十字會談과는 無關한 일이라고 반발하였다.
2. 第3次 本會談('72.10.24) 第6次 本會談('73.5.10)에서 北赤側은 議題 第1項 事業具體案으로서 아래와 같은 條件들을 제시하였다.

條件, 環境改善

- (1) 反共法規撤廢
- (2) 反共團體解体

(3) 事業參加者의 活動自由, 人身 및 携帶品不可侵 保障

(4) 政黨, 團體, 機關, 個人等 協調 保障

이에 對해서 南赤側은 그것은 赤十字會談과는 無關한 事項들이 라고 反駁하였다.

1. 第3次 本會議 ('72.10.24), 第1次 代表會議 ('73.11.28) 第1次 實務會議 ('74.7.10) 에서 北赤側은 基本立場으로서 赤十字會談繼續의 前提로 條件, 環境, 서울紛囂氣改善등을 내세웠으나 南赤側은 그것을 赤十字會談과는 無關한 일이라고 反駁하였다.

2. 第3次 本會談 ('72.10.24), 第6次 本會談 ('73.5.10) 에서 北赤側은 議題 第1項事業具體案으로서 아래와 같은 條件들을 제시 하였다.

또 같은 會談에서 아래와 같은 提議를 하였다.

3 解 解說人員派遣

(1) 里(洞)當 1名

(2) 離散笑態 3解 團結 凶謀容認

(3) 活動自由, 人身 및 携帶品 不可侵 保障

이에 對해서도 南赤側은 그것은 赤十字社의 自律性에 違背된다고 反駁하였다.

同時에 北赤側은 또 아래와 같은 提議를 하였다.

(1) 事業範圍로서 本人의 呼訴와 在日同胞를 包含할것.

(2) 當事者 自由往來原則을 지키되 赤十字를 仲介할 必要없음.

이에 對해서 南赤側은 (1)에 對해서는 當事者 相互確認을 必要

로 한다고 맞섰고 (2)에 대해서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일이며
또 赤十字社의 役割을 否定하는 일은 不當하다고 反발하였다.

3. 第1次 代表會議 ('73.11.28) 第1次 実務會議 ('74.7.10)

에서 北赤側은 本會談再開를 서울紛囂氣 改善時까지 當分間
平壤에서 開催할 것을 提議하면서

(1) 所謂 民主人士 彈壓中止

(2) 反共政策을 中止하고 擁共政策을 할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南赤側은 이미 合意된대로 서울에서 再開할것을
주장하였고 餘他문제에 대해서는 內政干涉이라고 反발하였다.

이러한 主張의 葛藤을 背景으로 하여 接近의 可能性을 增大해가
는 一方 1973年 가을과 末에는 南北이 各各 維新憲法과 社會主
義憲法을 公布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

三 . 北韓의 對南戰略과 言論攻勢

1 . 對南宣傳煽動의 基本方向

7.4 共同聲明原則은 날이 갈수록 南北會議過程에서 具體적으로 反證되어 왔음은 이미 본바와 마찬가지다 . 그것은 基本的으로는 北韓側이 民族大團結의 原則에 共同聲明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對南革命路線을 民族大團結原則의 上位에 놓고 있다는 종래의 態度를 바꾸지 않고 다만 南北會談을 戰術적으로 利用하려는 意圖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 레닌마來를 宣傳 . 煽動이 革命運動의 가장 重要한 武器라는 概念이 變更되지 않는 限 南北間의 信賴回復이란 不可能할 것이며 그러한 變化는 朝鮮勞動黨의 政策變化 즉 金日成의 意志의 變化를 前提하여서 비로소 可能할 뿐이다 .

그러나 이것 또한 不可能하다는 것은 歷史적으로 勞動黨이 어떠한 政策決定을 해 왔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

이미 6.25 戰爭의 쓰라린 苦痛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1956年 4月 黨3次大會에서 金日成은 아래와 같은 報告를 하였고 現在까지 그것을 수정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南北會談 場所에서나 外國記者와의 會見에서 어떠한 말을 하든간에 北韓當局의 基本立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

「조국통일은 간고하고도 복잡한 과업이다 . 적들을 인민대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며 南朝鮮 人民大衆이 자각적으로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에 필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体系的인 對南政治宣傳 事業이 요구되는 것이다.

…… 이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하여 對南政治宣傳 事業을 개선강화할 根本的 對策을 강구해야 한다. …… 南朝鮮의 구체적인 현실과 인민대중의 생활상 요구에 부합되게 對南宣傳 事業의 內容과 方法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84 후가 되는 1964年2月 黨4期8次 全員會議에서 이른바 <對南宣傳事業의 內容과 方法>으로서 「南朝鮮革命論」을 採択하였다. 이것의 骨子는 南朝鮮人民을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革命傳統 - 오늘 날에 있어서는 이것들은 立體思想으로 統合되어 표현되고 있다 - 으로 무장 시킴으로서 「民主基地」論을 發展시키는데 있다. 具體的으로 아래와 같은 內容이 된다. (9)

- (1) 金日成의 自主, 自立, 自衛의 原則인 主体思想으로 부터 自力更生原則에서 決定的 時期에 대비하기 위해 革命力量을 성장시켜야 한다.
- (2) 金日成의 鬪爭業績, 經驗, 事業作用과 方法을 習得하고 大衆속에서 崇美思想, 事大思想을 제거하며 民族主体意識을 높이고

註：(9) 金南植, 「北傀의 對外宣傳 基本方向, 民間海外弘報세미나 報告書, 1975, 韓國弘報協會 pp.14~15

民族傳統을 널리 宣傳하여 민족적 긍지를 가지게 한다 .

- (3) 맑스 . 레닌 主義를 선전하고 北韓社會制度의 優越性을 宣傳한다 .

여기서 발전해 온 戰略的 方針은 統一革命黨을 주축으로 하는 主力組織體系確保, 反美 . 反日 . 反政府 統一戰線을 形成, 反共體制의 弱體化라는 3大戰略으로 集約되고 있음은 知의 사실이다 . 當面 課題로서는 이른바 <民主化 鬭爭>을 전개하여 現정부를 전복하고 <民主聯合政府> 樹立이라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이다 .

이 戰略을 위한 宣傳內容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 (1) 北韓의 統一方案의 正當性 立張
- (2) 南北對話에서 對南批難資料를 얻는다 .
- (3) 南北의 緊張造成責任을 南韓側에 轉嫁시킨다 .
- (4) 모든 機會를 金日成主體思想을 宣傳하는 데 利用하고 金日成을 民族的 英雄으로 만든다 .
- (5) 南北比較에서 北韓의 優越性을 宣傳한다 .
- (6) 階級鬭爭 및 反政府煽動을 한다 .
- (7) 軍官民을 離間시킨다 .
- (8) 韓美, 韓日間을 離間시킨다 .
- (9) 南韓指導層을 不信케 하고 維新體制를 비난한다 .
- (10) 對北韓 同情심을 南韓民衆속에서 이르게 한다 .
- (11) 國際社會에서의 北韓의 平和政策을 선전한다 .

(12) 統一革命黨活動을 과장 선전한다 .

2 . 南北對話와 宣傳煽動

위에서 본바와 같은 基本方向에 따라서 北韓側을 對話過程에서도 그原則을 正確하게 지켜오고 있음을 그들의 言動에서 証明할 수 있다 . 여기에 그實例를 들겠거니와 이른바 北韓側이 提起하고 있는 <環境條件造成問題>가 가장 豊型的인 <人民民主主義革命>의 表現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들을 引用하기로 한다 .

(1) 金日成 ('73 . 1 . 1 新年辭) 「南朝鮮 反動들과 執權者들은 南侵威脅을 口實로 이른바 非常事態를 선포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誇大的 暴壓騷動을 벌리고 있습니다 , 요즈음 매일 같이 各種 誇大的 惡法들을 조작해 내고 있으며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온갖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마저 여지없이 말살하고 남조선사회를 끝없는 不安과 恐怖속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

(2) 「로동신문」 ('73 . 3 . 20 論文)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사여부와 주소를 알아내며 알리기 위한 事業을 원만히 보장하려면 우리側의 提案대로 무엇보다도 南朝鮮에서 그를 조해하는 法律的 - 社會的諸要因들을 除去하기 위한 해당 조치들이 취해어야 할것이다 」

- (3) 「로동신문」('72. 8. 6 論文) 「南朝鮮 為政者들이 정말로 나라의 平和統一을 바란다면…… 平和統一을 主張하는 南朝鮮의 政黨, 社會團體 및 民主人士들에 대한 彈壓을 그만두고 그들이 나라의 統一을 위한 南北間의 協商에 나설 수 있게 하며……」
- (4) 「민주조선」('72. 8.10 論評) 「南朝鮮 위정자들은 나라의 統一獨立과 民族의 尊嚴을 위하여 人民의 自由와 幸福을 위하여 偉로운 救國鬪爭을 벌인 참된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여 나선 것이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南北高位級 會談이 進行되고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된 직후에 그것이 敢行된 것이다. ………. 愛國者들은 应当 석방하고 그들도 온제레와 함께 나라의 자주적 平和統一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에 나설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 (5) 金日成 日本毎日新聞記者質問에 答弁, ('72. 9. 7) 「그들은 野黨들의 활동마저 구속하면서 야당인사들과 우리와 접촉을 가로막고 있으며 南北의 접촉과 교류 조국통일을 주장해 나선 수많은 人民들을 反共法에 걸어 검거 투옥하고 있다. 심지어 南朝鮮當局者들은 南朝鮮에서 民主主義와 平和統一을 위하여 투쟁한 애국자들에 대한 死刑을 집행했다」
- (6) 「조선중앙계 2 방송」('72.10.29) 「그러자면 南朝鮮에서

南北間의 接觸과 來往을 阻害하는 法律的 社會的 諸條件을 없애고 완전한 民主主義와 自由로운 環境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7) 「로동신문」('72.11. 7 사실) 「자기가 신봉하는 思想과 理念 制度를 남에게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자기와 반대되는 사상과 이념과 제도의 신봉자들은 탄압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그리고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示威의 自由와 政黨活動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하며 民主主義가 높이 발양 되어야 할 것이다」

(8) 「조선중앙방송」('72.11.22) 「赤十字 人道主義 事業을 실현하는데 조해를 주는 이러한 法律들과 規定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北과 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리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9) 金泰禧(記者會見 '73. 3.24) 「環境條件問題의 해결이 先決條件이라는 우리의 主張은 그 어떤 赤十字밖의 일이 아니라 赤十字 人道主義의 가장 本質的인 要求로 부터 出發한 根本問題의 하나이며 이 問題의 解決은 人間의 苦痛과 民族은 災難을 덜어주는 것을 基本使命으로 하는 雙方赤十字團體들의 회피할 수 없는 義務로 된다 .」

(10) 金一(最高人民會議 5期2次會議에서의 演說 , '73. 4. 5)

「오늘 거족적인 조국통일 운동을 벌려나가는 것이 또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人民들에게 자유로운 平和統一運動을 가로 막고 共產主義와 어떠한 연계와 접촉도 犯罪視하는 法律的이며 非民主主義的인 모든 法律들이 철폐되어야 하며 누구나 統一問題를 자유롭게 論議하고 行動할 수 있도록 言論, 出版, 集会, 結社, 示威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11) 「로동신문」('73. 5. 8 논설) 「北半部사람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가질수 없게 되고 그것을 범죄시하는 反共法, 國家保安法과 같은 法들이 있는 條件에서는 가족, 친척들을 찾기 위하여 자유롭게 來往할 수도 그 누구와 자유롭게 接觸할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 南朝鮮에 있는 사람일 경우 北半部에 있는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찾는것조차 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12) 洪起文('73.10. 4 연설) 「南朝鮮에서 총칼로 지탱되고 있는 모든 搾取的 統治集團은 除去되어야 한다. 反共法 國家保安法을 비롯한 모든 搾取惡法들을 철폐하고 中央情報部를 비롯한 暴圧機構들은 解体되어야 하며 言論, 出版, 集会, 示威의 자유와 平和統一을 위한 자유로운 活動이 보장되어야 한다.

(13) 「민주조선」('73.12.21 論評) 「南朝鮮 青年學生들과 民主勢力들에 대한 搾取的 彈壓을 중지하고 체포구금한 青年

— 學生들과 애국자들을 석방하며 人民들의 自由로운 활동을 억압하는 殘虐法들을 모조리 철폐해야 한다 .

'73年 8月 28日 金英柱의 對話中斷聲明이 나온 후에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을 前面에 내세우는 宣傳.煽動의 물결이 北韓의 言論을 휩쓸게 되었다 . 그 意圖는 이미 본바와 마찬가지로 對話와 交流를 통한 統一에의 길을 北韓側에 不利하게 展開될 것이라는 點을 南北往來의 結果 여러 各角에서 檢討한 結果 얻은것이 分명한 즉 7.4 共同聲明發表를 커다란 실수로 간주한 나머지 過激하게 對南戰略方向으로 還元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 그래서 當面課題로서 宣傳과 煽動을 통한 大韓民國批難 攻擊이라는 것에도 歸着되게 된 것이다 . 8.28 聲明후 10日間の 北韓매스.컴의 論調의 特徵은 焦點을 7.4 精神에서 부터의 다른데로 돌리려는데 있었다 . 우선 南北調節委의 構成員을 交替해야 한다는 強力한 立張을 내세우면서 調節委의 道德的價值를 否定하면서 그 理論의 延長으로서 南韓政府를 南北對話에서 妨害的인 存在로 만들고 따라서 除外해야 한다는 結論을 내는 것이었다 . 이러한 宣傳戰術은 南韓의 大衆의 絶對多數가 統一을 원한다는 前提下에서 南韓政府가 宣傳.煽動에 의해서 反統一要素라는 印象을 받게 되면 民衆에서 부터 遊離될 것이라는 假定에서 시작된 것이다 .

이미 그 內容은 어느정도 소개되었으니까 여기서 새삼 直接引用을 하지 않더라도 北韓當面の 意圖는 알수 있는 것이지 마는 다

만 그新聞放送의 제목자체부터 완전히 煽動의 次元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例證만으로 北韓当局의 目的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1) 「강파들과는 마주 앉아서 民族의 大事인 統一問題를 論할수 없다」('73. 8.29 「中央放送」論說)
- (2) 「우리는 統一을 바라는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한다」('73. 8.30 「로동신문」社說)
- (3) 「南北調節委員會가 자기 使命을 다하자면 共同聲明을 背信的으로 유린한 강파들을 除去해야 한다」(「민주조선」 '73. 8.31 社說)
- (4) 「對話席上에 統一을 바라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평양방송」 '73. 8.31 論說)
- (5) 「統一偉業에 대한 背反行爲」(「로동신문」 '73. 9. 6 論文)

말할바도 없이 이러한 集中的인 南韓政府批難은 필경 「反美」 「反日」에 까지 擴大되는 것은 北韓言論의 理論이자 마는 우선 이 단계에서의 攻撃의 焦點을 中央情報部에 두었다는 사실을 大韓民國政府의 權力構造의 急所를 찌르자는 戰術에서 나온것이다.

2. 對南煽動의 內容

金英柱의 對話中斷聲明이 나온 만 2個月후 10月28日 金日成의 연설은 對南批難의 새로운 局面을 展開하게 하였다. 「우리는

오직 鬪爭에 의해서만 나라의 平和統一을 이룩할 수 있으며 分裂主義者들과는 어떠한 妥協도 할수 없다」라는 骨子를 가진 이 연설은 大韓民國 國內分裂을 助長하는 言論內容의 公理가 된 것이다.

10月28日 이후 10日間の 北韓論調만을 보더라도 南韓內의 國內分裂을 교양한 論調로 一貫하고 있다.

우선 南韓內의 言論自由를 요구하는 言論界의 움직임을 재빨리 포착하여 10月28日 「평양방송」에서는 그것을 「正義의 筆鋒」이라고 치켜 올렸으며 동시에 「평양방송」을 「매판자본가」는 「美帝앞잡이」라고 다구치고 정부와 매판자본가는 「分裂主義者」(10.29)라고 규정하고 南韓人民들에게 항거 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음날인 10월 30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은 日本노래가 연주되는 썩어 빠진 곳이 서울이라고 文化紛囀氣까지 들먹어리는가 하면 「로동신문」(11.3)은 「南韓鮮學生들은 社會의 民主化와 祖國統一을 위한 義로운 싸움에 용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論評을 통하여 煽動했으며 이미 (11.7)에도 「평양방송」은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人民들의 反抗이 있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青年學生層과 大衆層을 煽動했다.

완전히 革命過程임을 錯覺케 할수 있을 정도의 煽動의 洪水속에서 北韓의 新聞放送만 읽고 듣고 있으면 南韓은 來日이라도 革命이 일어나는 錯覺을 느낄 정도 였다. 金日成의 10.28 연설이 「人民民主主義. 革命」突擊 나팔의 의미를 갖었던 것이다.

3. 最近의 煽動內容

'73年 8月 28日 金英柱聲明을 起點으로 하여 北韓의 對南批難은 7.4 共同聲明 以前으로 急速度로 還元하였으나 '73年 10月 28日 金日成연설 이후는 그것이 더욱 심해져서 對南論調는 革命煽動으로 變하게 되었고 일년이 지난 1974年 12月 30日 평양중앙방송에서는 지난 한해의 情勢 總括 對談프로에서 南韓의 情勢를 아래와 같이 評價하였다. 「革命역량은 날로 승승장구하고 반면 반동들은 멸망의 위기에 더욱 빠져들어간 격동적 사변들로 충만된 한해」였다. 그리고는 南韓의 정치적 위기, 외교적 위기, 경제적 위기 등등을 설명 하면서 이것은 바로 「투쟁이 매우 희생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세련되어 어떤 독재속에서도 싸우면 승리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評價했다. 물론 이런 評價는 實事性, 客觀性, 科學性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煽動目的에서 偏見的으로 構想된 觀念에 불과 한 것이지 마는 金日成의 10.28 연설을 實踐面에서 行動指針化 할려면 이러한 內容으로 될수 밖에 없는 것은 北韓體制의 生理임은 再論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煽動內容이 勞動黨政策의 內容이 될때 그것은 自己反省으로 修正될 수 있는 문제의 水準을 훨씬 넘어 北韓權力當局의 未來像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것이다.

'75年 2月 17日의 勞動黨中央委 第5期 10次 全員會議에서 채택된 이른바 「조선 노동당 창건 30돌 기념 당중앙위 구호」라는

것은 10.28 金日成연설 이후의 宣傳. 煽動을 集約적으로 종합하여 미래의 宣傳. 煽動의 指針으로 삼게 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 그리고 더욱 重要한 것은 이러한 党中央委 口号는 바로 党的 戰略內容이며 따라서 北韓内の 모든 大量媒介體는 이 테마를 가지고 合留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신문, 방송의 내용을 일일이 內容分析하지 않아도 이 口号만을 보면 北韓의 論調를 알 수 있는 尺度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려 소개하던 아래와 같다 .

- (1) 조선노동당 창건 30 돌을 남조선革命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진의 해로 만들자 .
- (2) 김일성사상 밑에서 남조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힘있게 다구치자 .
- (3)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기 위하여 전결히 투쟁하자 .
- (4) 매 관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들을 타도 하자 .
- (5)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책동을 짓 부시자
- (6) 통일혁명당의 영도밑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 인민들을 자신이 주동적으로 혁명의 앞길을 헤치며 승리에로 전진하라 .
- (7)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형성하라 .
- (8) 대중적 반 팻쇼 민주화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라 .
- (9) 민주연합정부를 세우라 .

(10) 팻쇼악법과 폭압기구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완강히 투쟁하라.

(11)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결국 「중앙위 구호」는南韓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煽動하는데 焦點이 있음이 明白하다. 그리고 黨政策은 이 以下도 아니고 이 以上도 아닌것이다. 이러한 宣傳戰略은 2年이 넘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조금도 變化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細分化되어 더욱 날카로와져 가고만 있다. 階級別, 階層別 또는 階層內分割別로 煽動의 內容이 細分化되어 가고 있으며 情勢의 變化와 더불어 더욱 細分化, 過激化가 추진될것이 分明하다.

「중앙위 구호」에 따른 對南煽動은 꾸준히 계속되다가 하나의 새로운 契機를 맞이 하게 되었다. 그것은 8.18 도끼 蠻行事件이었다. 그 事件自体가 金日成의 謝過를 불가피하게 한 客觀的內容을 갖고 있었던 만큼 그 反動으로 大韓民國政府에 대한 批難은 例없이 強化되었다. 朴大統領과 維新體制에 대한 集中的인 中傷 批難攻擊이 焦點이 되었다. '76. 8.20에 개최된 南北赤十字會談 第18次 實務會議를 評評하는 形式을 빌린 「로동신문」사설은

8.18 事件은 韓.美側의 計劃的 挑發이라고 하면서 「韓赤側이 會談姿勢를 바로 갖지 않고 의연히 美帝 朴○○從黨의 犯罪的인 두개朝鮮路線과 戰爭挑發策動에 가담해 나서는 條件에서는 人道主義 問題 그 자체는 물론이고 統一問題解決에도 결코 기여 할수 없다」고 하여 부연해서 「民族分裂의 永久化와 새戰爭挑發에 미쳐 날

뛰는 極惡한 分裂主義者들과 新戰爭狂信者들과 한 짝이 되어서
춤추면서 分裂로 인한 계급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니 뭐니하는
것은 하나의 容談이며 社會與論을 우롱하는 괴변이다」하였다.

8.18 事件의 焦點은 이와같이 轉嫁하는것은 北韓宣傳이 客觀的
立場이 不利해지면 언제나 하던 慣例的인 反應이지 마는 동년
8月30日에 서울-平壤直通電話를 不通시킨것도 8.18 事件으로 沒
頭하고 있는 北韓高位層이 8.30의 新進號 남포事件과 겹쳐 南赤
側에서 電話通知文이 새도할것을 豫測하고서 한 일이 分명한 것
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對南反應의 새로운 契機는 79年後 年頭記者
會見에서 朴大統令이 提起한 南北相互不可侵協定문제가 되었다.

1月25日 平壤에서는 여기에 對抗하여 「諸政黨, 社會團體 連席
會議」를 열고 南北政治協商會議를 逆 提議하였다. 그것을 가지
고 北韓側은 5大綱領중의 하나를 되어 있는 大民族會議案을 再
登場시키려는 意圖가 있었던 것은 分明하다. 이 「連席會議」는
平和統一原則을 再確認한다는 基本態度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不可
侵 協定案을 反對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南北政治協商會議開催를
요구해야 한다는 不透明한 論理위에서 있기 때문에 反對를 위
한 反對라는 印象을 주는 聲明을 발표하는 가 하면 여러가지
具體案을 提起하면서 不可侵協定案을 반대했다. 「南北間에 방대
한 武力이 서로 팽대하게 맞서고 있고 繼續 武力이 增強되고
있는 獰惡한 現實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條約이나 協定을

는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가 결코 가셔질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엄연한 현실」인 緊張狀態를 해소하기 위해서 不可侵
協定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엄연한 현실」때문에 協定이나 条約
이 필요없다는 것은 反對를 위한 無內容의 言語에 불과하다는 것
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서는 實質的으로 南北間의 軍事
的 對峙狀態를 해소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條件들을
내놓았던 것이다.

- (1) 南韓에서 核基地가 撤去되고
- (2) 美國이 끌어들이 核武器를 포함한 모든 殺人武器들이 撤去
되어야 하며
- (3) 美軍은 무조건 撤去되어야 하며
- (4) 南北双方의 武力을 大幅 축소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會議에서 提起되고 있는 問題의 本質的 部分은 調節委 第2次
會議에서 ('73. 3.14 ~ 16)에서 北側이 提案한 政治協商會議와 類
似的한바 있다. 南韓內의 核基地와 核武器撤去라는 條件이 追加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會議가 노리는 目的은 그聲明에서 밝히
고 있는바 처럼 「두개의 朝鮮을 政策으로 선포한 南朝鮮의 當局
者들과의 對話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明白
하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 밝혀 보겠다는데 있었고 그것은 金日
成의 10.28 聲明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동시에 「北韓의 社會主義
力量과 南韓의 愛國的 民主力量間의 大連」을 大前提로 하고 있다

는 것을 보면 「人民民主主義革命」 線을 再確認하는데도 있었던 것이다.

1977年에 들어와서는 카타美大統領의 撤軍計劃과 여기에 따른 國軍現代化計劃을 꼬집어 反美宣傳과 對南煽動을 一層더 激化시켰다. 6月18日 平壤에 있는 「祖国平和統一委員會」書記局은 朴大統領의 6月14日 前方視察과 6月16日의 陸軍主要指揮官會議를 가르켜 「韓國이 6.25를 契機로 情勢를 故意的으로 緊張시키려는 行爲」라고 비난하였고 6月23日 中部戰線에서 실시된 「步兵大隊攻擊 및 火力示範」訓練에 대하여 北韓內에 있는 모든 社會團體를 동원하여 6月25日부터 28日에 걸쳐 「南侵威脅의 口實밑에 戰爭準備를 더욱 추진시키며 情勢를 戰爭接境으로 이끌어 가려는 故意的인 挑發策動」이라고 비난했다.

北韓當局은 이러한 社會團體動員의 餘勢를 물고 7.4 共同聲明 5周年을 놔두고서 平壤市 報告會라는 것을 開催케 하며 동시에 매스.콤을 總動員하여 南北對話 中斷의 責任을 南北側에 轉嫁하고 「平和統一提案」을 大大的으로 宣傳하는 소동을 벌리면서 6月27日 「평양방송」에서는 「軍備를 줄여 人民生活에 보다 많은 資源을 돌리자」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南北間 軍備競争을 中止해야 한다는 主張을 되풀이 하였다. 이것과 步調를 맞추어서 從前까지 없었던 일로서 外務部에서는 備忘錄을 발표하고 6.25南侵을 南에서 부터의 「北侵」이라고 主張하면서 南韓側이 처음부터 好戰的이라는 印象을 남기려고 努力하였다.

카터의 撤軍決定을 「기만책」이라고 하고 있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그것을 契機로 하여 美國에 대한 비난이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비난의 主된 內容은 「美帝의 侵略政策不變」「두개의 朝鮮造作을 꿈꾸고 있는 美帝의 속셈」「美帝는 10月維新의 幕後 操縱者」「美帝侵略者들은 가장 暴惡한 現代의 야만인이며 우리 人民의 피맺힌 원수」등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宣傳. 煽動은 이미 정해진 撤収를 北韓側의 壓力으로 이룩하게 되었다는 印象을 주기 위한 것이다.

四 . 南北提議의 差와 言論政策

1 . 對話性格의 段階的 變化

6.25 戰爭이 일어난지 22 年만에 7.4 南北共同聲明으로 처음으로 南北間의 合意하는 奇蹟이 발생하였다 . 이것을 奇蹟이라고 하는것은 國際情勢變化라는 要因을 除外하고는 南北이 共히 重要政策決定에서 南北對話를 追求하고 있다는 아무런 表面上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 다만 한가지 실마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71 年 8 月 12 日의 南赤側의 離散家族찾기 運動提議를 北赤側이 수락하므로써 同年 9 月 20 日부터 板門店에서 豫備會談이 開催된 것이 南北調節委員會成立을 위한 南北赤十字 代表間의 秘密接觸 ('71. 11. 20 ~ '72. 4. 26) 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 秘密接觸의 基盤위에서 서울 - 平壤間의 相互 訪問 ('72. 5. 2 ~ 5 間의 李厚洛情報部長의 平壤訪問과 '72. 5. 29 ~ 6. 1 間의 朴成哲의 서울訪問) 이 이루어지고 南北共同聲明 發表에 合意하였다 . 이로서 사실상 南北接觸이 公式적으로 시작 되었기때문에 이 段階를 豫備接觸段階라고 할수 있다 . ('71. 9 ~ '72. 8) 이 段階에서 南北赤十字 本會議 代表團도 구성하고 會議節次에서 合意를 보고 南北直通電話와 板門店 連絡事務所도 設置 되었다 . 南北雙方은 이 段階에서 相互가 相對方의 真意를 打診하고 對話를 成立시키는데 類例없는 誠意를 보였다 . 金日成自身이 直接 對話에 關与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의 言論도 대단한 誠意를 보였다 .

이점은 이미 朴成哲의 記者會見內容이나 「中央第2放送」이나 「로동신문」社說의 論調에서 밝힌바와 마찬가지로.

南北對話의 本格的 段階는 1972年8月부터 雙方代表가 서울-平壤間을 往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시작 되었다. 가장 緊張緩和의 氣運이 造成된것은 이때였으며 南赤 代表團과 더불어 平壤에 갔던 南韓側의 記者團에 의한 平壤에서의 生생한 現地報道는 실로 새로운 時代가 到達하고 있구나 하는 印象마저도 주었다.

例컨대 1972年9月15日字 「로동신문」은 그때가 마침 서울에서 南北赤十字會議 第3次 會議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雙方은 三個項目에 대한 合議書를 交換하던 때라 一面 社說欄 및 左側에 다 「로동신문」社 特派員이 서울에서 보낸 發信記事를 실고 合議에 따라 10月24日 第3次 南北赤十字 會談이 平壤에서 열린다는 것을 크게 報道하였다.

三面中央下部는 日本의 朝日新聞, 毎日新聞, 東京新聞, 産經新聞등 大新聞들의 社說를 여기저기서 引用할 뿐만아니라 <조선통일을 전망한 동거리외교를> 등이라든지 <국교정상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할 시기가 왔다>는 등 日本新聞의 社說題目을 그대로 記事題目으로 내걸면서 마치 日本言論들이 北韓과의 國交正常化를 열망하고 反對로 韓日國交正常化를 비난하고 있는것 처럼 編輯하고 있다. 이 記事는 9月13日 發 朝鮮通信이 東京에서 發信하고 平壤에서 朝鮮中央通信으로 나온것인데 주된 記事內容은 9月10日朝日新聞의 社說을 거의 그대로 全文引用한 것이다.

四面의 下半部는 모두 南韓과 관계되는 記事로 매여 있다. 남북되었던 90여명의 어민들을 南쪽으로 돌려 보내준 기사와 아울러 어민들의 말이라 하여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大原則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 굳은 결의」를 引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四面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적십자회대표단을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 南朝鮮側 共同委員長 小宴會와 만찬회를 차렸다」는 기다란 제목의 기사를 실고 소상하게 그 光景을 묘사하고 있다. 異例的으로 肯定的 態度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 었다. 그리고 아울러 北赤代表들이 현충사를 돌아 봤다는 記事도 실고 있다. 그러나 五面에서는 反美宣傳記事로 파악 있지만 이날의 「로동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對話에서 매우 肯定的, 客觀的 態度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北側이 그만큼 南北對話에 대하여 誠意를 보였다는 具體的資料가 될 수 있다.

그러나 對話가 推進되고 緊張緩和가 지속되면 될수록 雙方은 自己露出을 하게되기 때문에 새삼 对内体制整備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그 結果가 南側에서는 維新憲法發布요 北側에는 社會主義憲法制定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사실은 南北이 現實的으로 对内体制를 整備하면 할수록 7.4 共同聲明以前의 條件으로 돌아 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7.4 共同聲明 原則 자체를 그누구도 否定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最小限 對話테두리 내에서 相對方을 批難攻擊해야 한다는 하나의 새로운 機制가 마련된것은 南北關係

에서 새로운 側面이라 할수 있다 .

따라서 1973年初부터 同年8月까지는 相互間이 統一方法案에서 先取的立場을 確保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그러니 만치 雙方의 提案內容도 多樣해졌다 . 그러면 그럴수록 會談의 紛囂氣는 硬化되고 雙方의 言論도 이를 뒷받침 하였다 .

결국 意思對立段階가 약 8個月 계속되다가 1973年8月28日 金英柱의 對話中斷聲明이 나오게 되므로서 北側은 露骨的으로 對南 「人民民主主義革命」 宣傳 . 煽動으로 들어 갔고 南北調節委員會 會議도 中斷되고 赤十字 本會議도 中斷되고 서울 - 平壤往來도 凍結 되었다 . 이 사실은 北側이 傳統的인 對南戰略을 變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하였지 마는 對話過程에서 對答을 통한 南朝鮮 革命與件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認識한 結果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話의 完全斷絶에까지 發展하지 못했던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7.4 共同聲明原則을 否定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마는 現實的으로는 對話의 完全斷絶이 戰爭이나 기타의 可能性을 增大시키기 때문이 었다 .

1973年末에서 부터 1975年3月까지는 이러한 意味에서 8.28 中斷聲明을 冷脚하는 期間이 었으며 調節委 副委員長會談 ('73.12.5) 成立 , 赤十字實務會議成立 ('74. 7.10) 등이 그것을 의미 한다 . 그렇기는 하지마는 이 會議들에서 아무런 合意도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 會議들은 主題의 討議보다는 會議決裂責任轉嫁의 場所로 利用되었던 것이라고 할수 밖에는 없다 .

1975年4月 이후 現在까지는 南北間의 緊張이 激化된 段階로서 파악된다. 調節委 副委員長會議가 無期延期되고 ('75. 5.29), 南北直通電話가 杜絶되고 ('76. 8.31) 다만 赤十字 實務會議만이 形式的으로 進行되는 反面에 南北間의 新聞, 放送만이 극성을 피우는 사태에 빠지고 말았다.

2. 南北主張의 差와 對策

統一문제에 관한 限 南北이 公히 政府의 言論政策에 발 맞추어 왔다. 오히려 政府政策의 代辯的 役割을 하여 왔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말이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南北會談水準에서 일단 雙方提案이 對立되고 批難이 交換되면 言論은 一方的으로 自己側의 立場만 옹호하고 合理化하기 때문에 言論이 對話交錯에 대하여 아무런 中裁的力割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對話에 있어서의 主張의 對立이 스스로 緩和될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하는 結果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여 韓國의 言論이 유독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第四府의 役割을 하지 못하였다는데 對話當事者들에게 넓은 準拠基準을 提供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原因은 基本的으로 南北이 軍事的으로 對立되어 왔다는 歷史的 背景에서 由来되는 것이지 마는 實質的 으로는 分斷이라는 狀態가 軍事均衡에서 유지되고 있느니 만큼 南北關係는 一次的으로 國家安保問題로서 認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言論自由가 이 部分에서는

自己制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反面에 現在 形式的으로 進行되고 있는 南北對話에서 雙方이 提起하고 있는 主張의 對立點은 要約하면 실로 아래와 같은 簡單한 內容이다.

우선 南韓側의 主張의 一貫된 論理를 보자

南韓側主張

1974年8月15日 朴大統領이 제시한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의 論理에서

- (1) 北韓의 對南暴力革命(人民民主主義革命) 路線을 止揚한 基礎 위에서 相互不可侵協定締結, UN 同時加入 라는 平和定着의 制度化.
 - (2) 赤十字 活動을 통한 人道主義的事業을 우선 進行시키면서 信賴回復을 기다렸다는 段階的, 漸進的 交流과 協力
 - (3) 土着人口比例, 自由總選舉에 依한 統一政府樹立
- 이라는 統一戰略이 나타 나고 있다.

北韓側主張

勞動黨規約과 社會主義憲法에서 平和統一問題를 全國을 主体 思想化한다는 規定을 내리고 있고 그것이 아직도 아무런 수정을 보고있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統一問題는 「人民民主主義」戰略을 具顯하는 戰術的 地位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3大革命力量 強化에 의한 南半部の 吸

收라는 行動指針으로서 要約될 수 있다. 具體적으로는

- (1) 北朝鮮에서의 社會主義革命基地의 強化
- (2) 南韓에 있어서의 反政府勢力(革命力量)의 強化
- (3) 第3世界와의 유대 強化를 통한 大韓民國을 國際적으로 格下乃至는 立시킨다는 것으로 集約된다.

이와같은 前提에서 보면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 自体가 3大革命力量을 弱화시킬 수 있다는 可能性이 登場할때는 戰術인 對話는 포기 할수 있더라도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는 戰略目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勞動黨의 基本立場이다.

따라서 對話過程에서 끊임없이 南韓革命力量을 強化하는데 障礙的要素를 除去하려는 提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南韓側의 提議와 北韓側의 主張은 窮極的으로는 自由選舉를 통한 民族的 一般意志로서의 民族統一 개념과 社會主義 北半部를 基地로하여 全國을 社會主義化하는 것으로서의 統一개념이 다르다는데서 南北의 差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統一을 위한 對話자체가 政權意志로서는 質的轉換의 可能性이 稀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統一이라는 것이 民族至上課題로서 남는다면 우선 이 문제는 民族統一理論의 再定立에서 부터 시작 되어야 할 문제로서 浮刻된다.

政權的水準에서 統一理論이 없는것은 아니다. 솔직하게 말 해서 金日成의 主体思想만 해도 全國이 主体思想化하는것이 바로 統一

이라고 觀念하고 있는것인데 그렇다고 그 때의 主体는 現北韓政權을 말하는 것이오 南韓은 單純히 主体思想化의 對象으로서 밖에 存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人民의 一般意志라고도 할 수 없고 民主主義的이라고도 할 수 없고, 결국 노골적인 南韓政府의 顛覆을 期待하는 것 以外에는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南韓側이 人口比例 自由選舉를 統一의 最終節次로 보고 있을 뿐 무엇을 위한 統一이나 하는 哲學이 欠如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觀點은 노골적인 現政府의 延長 擴大로서의 統一을 觀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民族分裂的 要素는 內包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前提에서 南北의 言論機能의 變化可能性은 어떠한가.

- (1) 「로동신문」을 비롯한 北韓의 言論은 現在條件으로서는 黨機關言論의 立場에서 조금도 벗어날수가 없다. 따라서 北韓 言論의 論調變化는 基本的으로 權力構造와 그 性格(路線) 變化를 前提할수 밖에 없다.
- (2) 南韓言論은 統一問題를 除外하고서는 余他문제에 대해서는 相對的으로 第四府의 役割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狀態는 지속되기 보다는 可及的이면 빨리 留保領域을 止揚하므로서 第四部の 役割을 正常化해야 한다. 그것은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한 더幅넓은 準拠點을 제공해 줄수 있으며 동시에 統一政策에 대한 大衆의 一體感을 보장해주는 唯一한

方法일 것이다. (물론 많은 忍耐力이 필요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北韓에서 統一戰略으로서 「人民民主主義革命」路
線을 들고 나오는 것도 大韓民國國民의 統一政策에 대한 大
衆의 一体感이 欠如되어 있다는 判斷 또는 認識論에서 可能
했던 일이다.

以上 본바와 같이 統一論調에서 變化의 可能性을 가지는 것은
南韓의 言論뿐 이다. 매스. 미디어의 大衆에 대한 영향력이
하면, 할수록 言論은 一次的으로 冷戰體制를 克服하는 主体的
感을 確立해야 할 것이고 - 이점이 바로 저나리즘과 아카데미,
合流하는 部分이 되어야 한다. - 그것이 옳은 理論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리없는 民衆들 까지도 同感할 것이기 때문에 言論의 第
四府的 役割은 現實的으로 國論統一의 가장 重要한 武器가 될 것이
이다. 이 作業은 統一를 위한 言論의 役割의 始作일 뿐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또 새로운 課題로서 解決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
은 새로운 民族觀樹立과 더불어 無限하게 登場하게 될 것이다.